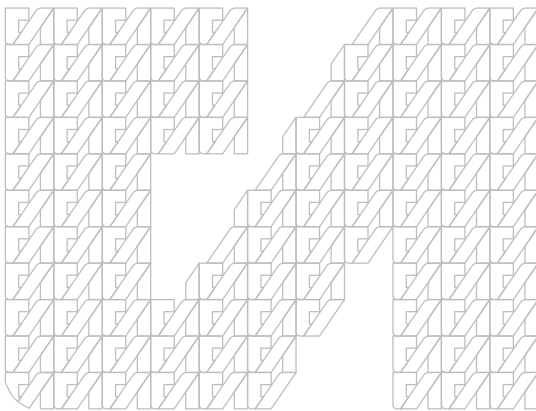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방안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류유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지원	• 정양화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기본연구 2019-10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방안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9년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5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임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학업을 위한 개인의 이동, 즉 유학생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유학생 유치’를 학생교류가 아닌 국가 산업이나 교육 서비스산업의 발전기회로 인식하면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유학생은 지식생산생태계 내부의 주체이자, 지식생산과 축적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실질적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동안 한국문화를 일상적으로 내면화하는 이주민임
- 따라서 유학생은 단순히 유학생 유치와 관리라는 교육의 관점에서 조망할 아젠다가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상품을 소비하며 문화를 내면화하는 지역주민으로, 일자리와 경제정책의 대상이자, 장기적으로는 이주와 사회통합의 주체 등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봐야 함

■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1) 늘어나는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별, 학과별, 학위별, 연령별, 체류기간별, 성별 실태파악을 통해, 2) 이들이 대전에서 유학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3) 이들의 성장에 대전시와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4) 지역적 관점에서 대전이 외국인 유학생과 어떤 협력적 관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통계분석 :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법무부

의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 문헌연구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자료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논문 및 보고서
- 인터뷰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대전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관 담당자
- 전문가 자문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강의 경험 교수, 이주 및 유학생 관련 전문가

■ 연구 내용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현황 :
 - 대학별, 과정별, 출신 국가별,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대전시 구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 구별·성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지역 생활 경험
- 졸업 후, 생애 기획: 취업 및 귀환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과 정책과제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

☐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

- 2018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6,87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추세

- 2003년 314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6,877명으로 늘어, 약 21.9배 증가함

☐ **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 2,922명으로 제일 많고, 동구 2,442명, 서구 914명, 대덕구 577명, 중구 22명 순임

☐ **외국인 유학생 연령**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20대 78.5%인 4,713명, 10대가 13.8%인 831명, 30대가 7.1%인 427명, 40대가 0.5%인 28명임
- 연령별 성별 비율을 보면, 10대와 20대에서 여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고, 30대와 40대에는 남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음

☐ **외국인 유학생 성별**

- 대전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 3,532명, 남성 3,345명임.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은 2003년 초기에는 남성이 많다가 2009년 이후로는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수가 많음

☐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38.6%로 제일 많고, 다음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23.9%임.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류자의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체류 기간을 성별로 보면, 3년 미만 체류에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4년 이상에서는 남성 외국인 유학생 많음

☐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52.3%는 중국 출신이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순임

- 국적과 성별로 외국인 유학생을 보면,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 러시아, 중남미 출신에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외국인 유학생은 남성이 많음

☐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2005년 이래로,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박사 전 학위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 학위별로는 학부과정이 가장 많고, 석사, 박사 순임

☐ 대전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충남대학교에 1,458명, 우송대학교에 2,06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음. 충남대학교에는 어학연수생이 약 30%를 차지하고, 우송대학교에는 학부생이 50% 이상을 차지함

☐ 대전지역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 학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67% 이상이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이고, 공학 계열이 16%임
- 석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57%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이고, 31% 이상이 공학 계열에 재학 중임
-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47.6%가 공학 계열이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23%대로 유사함

☐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 특이성

- 대전지역에 있는 대부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되어 있음

-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는 의학 계열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음
- 한밭대학교와 우송대학교에는 공학 계열에 적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있음
- 우송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의 학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고, 목원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에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음
- 카이스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80%가량이 공학 계열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있고, 석사과정에 인문사회계열을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음

☐ 대전지역 유학형태

- 대전지역 대학교의 유학형태는 카이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비 유학임
- 우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거의 100%가 자비 유학이고, 충남대학교는 95.5%, 한남대학교가 91.3%, 목원대학교가 88.4%임. 자비 유학비율이 제일 낮은 대학은 대전대학교로 74.5%임.
- 카이스트는 오직 10.5%만이 자비 유학이고, 대학초청 유학생이 53.4%, 정보초청이 14.1% 순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 여부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38.3%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음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충족 학생 비율은 37.51%이고, 2018년 대전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은 23.69%임

■ 정책 제언

(1) 지자체의 정책적 접근

☐ 조례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지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원내용은 ‘한국어 및 생활적응 교육’, ‘생활·법률·국내취업 등에 관한 상담’, ‘주거 등 생활 편의 안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생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
- [대전광역시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조례의 내용은 다양한 국적, 문화, 언어, 지역의 유학생 유치와 함께 이들이 지식생산 생태계의 주체이자, 집을 빌리고 세금을 내며 버스를 타고, 소비하는 지역민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조망되어야 함

☐ 국제교류센터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선택과 집중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조직과 전문성에 비해 외국인 관련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특정 대상과 업무를 선택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전략 필요

☐ 청년정책과 유학생의 연계

- 대전시의 청년정책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부재함. 도시의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국제화에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임
 - 취·창업 준비 및 취·창업자 지원 정책 대상에 유학생 포함
 - 대전형 코업청년 뉴리더양성사업과 같은 청년 인턴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포함

- 청년 대상 공간지원사업이나 주거 방안, 대청넷, 해외교류사업, 예술사업 등에 외국인 유학생 참여

☐ 인구정책과 유학생의 연계

- 지역정부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내재화한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접근
-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등은 외국인 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최근 정부의 국적법 시행령 개정 검토 및 시행

☐ 외국인 유학생 건강 지원

- 유학생 병원 지정, 통역서비스 지원
- 건강 및 보험 관련 세부 정보 다국어 지원 매뉴얼 및 리플릿 제공
- 감염병 등 유입 및 전파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유학생 대상 정보 제공

(2) 대학의 정책적 접근

☐ 맞춤형 한국어 지원

-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수업
 - 대학별, 수준별 외국어 수업 강좌개설 혹은 대전지역 대학 연합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 개설
 -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작성 수업에 대한 강좌 및 커리큘럼 개발
 - 대학원 유학생 대상 논문 맞춤법 및 문법 교정을 제공하는 한국어 클리닉(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 수업만족도 제고

- 전공수업에 필요한 발표문 작성법, 발표, 보고서 작성법, 파워포인트 작성법 교육(건국대학교)
- 기초한국어 교양과목 개설 및 한국 문화 및 시사 관련 중·고급 과목 개설(계명대학교)

○ 입학 전 한국어 준비

- 입학이 확정되면, 자국에서 한국어 및 전공 관련 교육 제공(경성대학교, 외국어대학교)

□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 유학생 전용 교과목 개설

-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전용 교과목 개설(단국대)
- 유학생만 입학 가능한 국제자유전공학부 신설(단국대)
- 외국인 교원으로 구성된 국제학부 별도 운영, 졸업 후 한국 및 국제영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마련(영남대학교)
- 외국인 학부 유학생 대상 이중 언어과정 운영 및 외국인 대학원생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영어논문작성법 특강(한국해양대학교)

○ 유학생 학업지원

- 전공분야 전문 용어 이해도 향상을 위한 단과대 협력 전공기초과목에 대한 단어집(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부산대학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및 한국어 특강 및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분야 기초학습역량 지원프로그램 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
- 유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과별 최소 1명 이상의 외국인 교육 지원(계명대학교)

- 비영어권 출신 국가 유학생을 위한 논문, 리포트, 발표, 이력서 영어문서 첨삭지원(서울대학교)

☐ 학교, 의료 및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국어 설명서
- 대학별 유학생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인근 병원과 연계
- 학사 일정 및 규정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 휴학 및 복학, 졸업 요건 등 학사 규정에 대한 설명회 및 4개국어 유인물(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제공(건국대학교)
- 생활서비스 지원
 -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 매칭, 1학기 15시간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공학픽업부터 한국생활에 도움을 준 한국인 학생에게 봉사시간 및 장학금 제공(홍익대학교)
 - 유학생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수강신청, 기숙사 및 도서관이용, 보험, 학교 프로그램, 은행 및 보건소 이용 정보제공(전북대학교)
 - 유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신적 불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제공(경희대학교)
 - 위기상담(자살방지, 예방교육, 자기조절, 캠퍼스 안전망) 및 인권교육(서울대학교)
 - 유학생 학업 및 상담 제공(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 대전국제교류센터와의 정책 및 사업 연계

☐ 한국인과의 대면 및 사회적 관계망 확장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한국인과의 대면, 사회적 관계 확장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사업 확대 및 강화
 - 대학별 멘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위한 전담 조교 배치
 - 학과 및 학교별 일정 비율 이상의 유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을 지원할 전담 교수 및 조교 배치
 - 학교생활 적응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인 학생과 일대일 멘토 연결 활성화, 멘토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외국인 유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 지원
 - 유학생-내국인 학생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1,2학년학부생과 한국인 학생과 1:1매칭을 통한 기초전공과목 학습도우미 시스템 운영(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 한국인 멘토가 외국인유학생의 논문 및 각종 보고서 지원(전북대학교)

☐ 교직원 및 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 교직원, 교수, 내국인 학생 및 유학생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증진 교육 의무화
- 총학생회 혹은 학과 학생회에 유학생을 대표할 유학생을 일정수 할당제로 선출
- 축제 기간에 ‘유학생의 날’ 혹은 ‘문화교류의 날’ 등을 통해 교류의 장 확대
- 대학 내 ‘글로벌 라운지’ 설치, 유학생이 한국학생에게 자국어를 가르칠 기회부여, 한국학생은 외국어수업을 제공받고 유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방식

☐ 취업 및 체류 지원 방안 개발

- 최저임금, 임금제불, 차별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노동법 및 노동권에 대한 기본교육 제공
- 취업절차, 취업통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차례

1장 서론	3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방법과 내용	11
2장 유학생 관련 논의	15
1. 이동하는 학생들	15
3장 대전 유학생 현황	31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31
2. 대전 외국인 유학생	39
3.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75
4장 유학생 관련 정책	81
1. 유학생 관련 조례	81
2. 유학생 관련 정책	89
3.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92
5장 인터뷰 결과	103
1.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103
2. 대전 유학생 관련자 의견	133
6장 결론	143
1. 요약	143
2. 정책제언	149
참고문헌	158

표 차례

[표 1-1] 교육부 유학생 유치 정책	7
[표 2-1] 한국 내 유학 관련 비자	18
[표 3-1] 국내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31
[표 3-2]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33
[표 3-3] 국내 2018년 학위 과정별 전공과정별 현황	34
[표 3-4] 국내 2018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35
[표 3-5] 국내 2005년~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	37
[표 3-6] 시도별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	40
[표 3-7] 2018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수	41
[표 3-8] 대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42
[표 3-9] 대전 2005~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	44
[표 3-10] 2018년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47
[표 3-11] 2018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전공과정별 현황(전체)	49
[표 3-12] 2018년 대전지역 주요 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 전공과정별 현황	50
[표 3-13] 2018년 충남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53
[표 3-14] 2018년 한밭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54
[표 3-15] 2018년 대전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55
[표 3-16] 2018년 목원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56
[표 3-17] 2018년 배재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57
[표 3-18] 2018년 우송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58
[표 3-19] 2018년 한남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60
[표 3-20] 2018년 한국과학기술원 유학생 국가별 순위	61
[표 3-21]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 유학형태	64
[표 3-22] 2018년 대학교 기숙사 수용 여부	65

[표 3-23] 2018년 유학생 언어 능력(대학교)	67
[표 3-24]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대학원)	68
[표 3-25]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연도별 대전지역 유학생 수	69
[표 3-26]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연령	71
[표 3-27]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체류기간	72
[표 3-28]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국적(전체 1% 이상)	74
[표 4-1] 대전시의 대학생 관련 조례와 규칙	82
[표 4-2] 대전시 외국인 관련 조례와 규칙	83
[표 4-3]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례	85
[표 4-4] 코펜하겐 대학 유학생 지원	99
[표 5-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105
[표 5-2] 연구 참여자 유학 생활 정보	111

그림 차례

[그림 3-1] 국내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32
[그림 3-2] 국내 2018년 학위과정별 전공과정별 현황	35
[그림 3-3] 국내 2018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36
[그림 3-4] 국내 2005~2018 외국인 유학생 수	38
[그림 3-5] 국내 2005~2018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38
[그림 3-6]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 시도별 순위	39
[그림 3-7] 2018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수	41
[그림 3-8] 대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43
[그림 3-9] 대전 2005~2018 외국인 유학생 수	45
[그림 3-10] 대전 2005~2018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45
[그림 3-11] 2018년 대전지역 대학 전체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48
[그림 3-12] 2018년 대전 4년제 대학교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및 비율 ..	48
[그림 3-13]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 과정별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52
[그림 3-14] 2018년 대전지역 유학형태	65
[그림 3-15] 2018년 대학교 기숙사 수용 여부	66
[그림 3-16] 대전지역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여부(대학교)	67
[그림 3-17] 대전지역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여부(대학원)	69
[그림 3-18]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연도별 유학생 수	70
[그림 3-19]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연령	71
[그림 3-20]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체류 기간	73
[그림 3-21]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국적(전체 1% 이상)	74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과 내용

1장

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학업을 위한 개인의 이동, 즉 유학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단순한 학생교류가 아닌 국가 산업 발전 기회나 교육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OECD, 2018; 김혜진, 2008¹⁾).
- 유학은 다른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는 욕망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질 높은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은 고용조건과 기회와 같은 교육보상에 대한 개인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한편 상품과 자본, 서비스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국가 간 경제가 통합되는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즉 좋은 노동조건을 찾으려는 개인들과 더 우수한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과 국가의 요구가 만나,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맥락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 관련 다양한 연구 가운데 이들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도 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단일 정체성이 아니라 이주자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문화를 접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자, 한국의 교육체계에서 사회화되는 주체이자 지식생산과 축적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실질적 구성원이라는 점이다(김도혜, 2019²⁾).
- 따라서 유학생의 증가는 ‘교육’ 관점과 정책에서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로만 조망할 아젠다가 아니라, 거주하고 소비지출하는 지역 주민으로,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주와

1) 김혜진(2008), 지역 내 중국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2) 김도혜(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

사회통합의 주체 등 다차원적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이동성의 증대

-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국제학생의 등록률은 6%에 머물지만, 이들이 박사과정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생산과 축적의 영역에서 외국인 유학생³⁾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STEM)으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유학생의 1/3이 이 분야에 등록을 하고 있다(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⁴⁾).
- 지역별로 보면, 유학 기간이 짧은 고등전문학교와 석사과정에 대한 아시아지역 학생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 학생들은 학사와 박사과정으로 더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의 이동성은 커지고 있다. 유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 유학이 다른 경험을 주며, 교육과 기술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국제학생의 이동성은 국가들의 정책적 주목을 받는다. OECD 국가에 등록한 가장 큰 그룹은 아시아 출신과 유럽 출신이 많다. 2016년 유학생의 55%가 아시아권, 24%가 유럽 출신이다(OECD, 2018).
-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9만여 명이었던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은 2017년 239,824명으로 증가했는데, 중국과 미국으로 이동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교육부, 2012).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의 증가는 높은 교육열과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에서의 이점이 이유로 분석되는데,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계급 재생산 혹은 계층 상승의

3)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로 불림

4)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ag-2018-en.pdf?expires=1542619321&id=id&accname=guest&checksum=2104A17E6556C6587C88CDB1B1F611E6>, 2018년 11월 19일 검색

주요한 통로로 인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심화

- 세계 국가들 및 다국적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위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창의적이며 기술력을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대한 경쟁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적은 국가 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유학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 확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충원 등 각 국가마다 배경은 다른지만,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가 다국적 기업 및 여러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고 있다.
- 일본은 2020년까지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War for Talent’를, 중국은 세계인재 50만 명을 확보한다는 ‘중국유학계획’을, 싱가포르는 세계 유명대학 35개를 유치하는 ‘교육허브 구상’등을 발표하며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김한나 외, 2016).
- 실제 우수 인재에 대한 유치경쟁이 본격화된 것은, FTA와 함께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가 개방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중요해졌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많아지는 등 국내·외 교육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교육부, 2012⁵⁾).
-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2005년에 ‘Study Korea Project’를 세우면서, 국내 교육체계를 국제화함과 동시에 유학생 유치를 추진했다. 2013년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와 국내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5) 교육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모델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Study Korea 2020 Project’를 발표했다. 여기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은 감소하는 한국의 학령인구와 세계 고등교육 시장의 유학생 규모의 4.4%라는 구체적인 수치에서 나온 것인데(교육부, 2012; 김한나 외, 2016⁶⁾),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정책 대상으로서의 유학생

-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정책은 2000년대 이전에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 2004년 이전까지 두뇌유치(Brain gain)의 관점에서 애국심과 경제적 처우를 모티브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와 첨단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들을 유치하려 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의 관점에서 연구의 조건과 삶의 질을 내세워 한국인과 외국인을 유치하려 했다. 해외의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은 ‘Brain Pool’ 과 ‘BK21’, 그리고 ‘Study Korea Project’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왔다(이민정책연구원, 2018⁷⁾; 리서치에이플러스, 2017).
-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구체적인 정책의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세계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글로벌 사회로의 전환, 대학 경쟁력과 순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학생 인구감소 등과 같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는 정책과제가 되었다(김한나 외, 2016; OECD, 2010).
- 유학생의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구조개선과 새로운 학생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 가운데 하나이자 안정적 대학운

6) 김한나 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Vol.17, No.4, 311-337

7) 이민정책연구원(2018), 외국인 전문 인력 입국 및 체류실태; 리서치에이플러스(2017), 외국인 전문 인력, 유학생 정책 개선 방안

영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비수도권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2008년에는 충남대학교가 국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 1,084명을,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우송대학교가 3위, 853명을 유치했다(교육부, 2009⁸⁾).

-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2004년부터 ‘Study Korea Project’를 기획했지만(교육부, 2012), 유학 수지의 개선도 하나의 주요 목표였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우수 인재유치, 유학수지 개선 등은 유학생의 유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기에, 2008년부터 정부는 유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정했고, 2010년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유학생 유치에만 집중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김한나 외, 2016).

[표 1-1] 교육부 유학생 유치 정책

연도	정책	목표
2004	Study Korea Project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유학수지 개선
200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유학생 관리의 효율화
2009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유학생 유치 및 질 향상
2011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⁹⁾	유학생 유치 및 질 관리와 개선
2012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	유학생 유치의 양적 성장과 질 개선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유학생 유치 확대
2015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유학생 유치 확대

자료: 김한나 외(2016), 교육부 보도자료(<https://www.moe.go.kr>)

8) 김철희외(200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연구

9)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통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학을 선정하고자 함

- 2004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유학생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능력, 수업참여와 학교생활의 적응, 경제적인 문제 등 유학생 유치에 따른 관리의 질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학의 문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요구와 개인적 여건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에 따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교육부, 2009:149).

□ 대전지역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증가 현황

- 대전지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각각의 목적과 시기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대전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발표한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유학비자(D-2)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총 102,127명으로, 이 가운데 약 17.8%인 5,737명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¹⁰⁾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또 다른 통계인 2018년 12월호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유학생(D-2)은 102,690명, 한국어 연수생(D-4.1)은 57,971명, 그리고 외국어 연수생(D-47)은 10명, 총 160,67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들의 출신국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68,994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이 45,143명인 베트남, 몽골 8,650명, 우즈베키스탄 7,840명 순이다¹¹⁾.
-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99년 총 128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10년만인 2008년에는 4,059명으로 32배가량 증가했고, 2018년에는 6,877명으로 늘어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2018년 1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

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8년 12월 말 현재)

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황¹²⁾에 따르면, 전국에 117,12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는 6,003명으로 서울 44,150명, 경기도 14,609명, 부산광역시 9,071명, 경상북도 7,398명, 충남 6,149명 다음이다. 대전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크기나 인구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다.

- 위의 통계는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지역 정부 모두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통계의 목적과 시기, 실시 기관과 방법, ‘유학생’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지역에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확한 통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 지역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악화에 따라 대전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가져왔다.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충청투데이, 금강일보¹³⁾). 그 결과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5,149명에서 2016년 5,467명, 2017년 6,003명으로 증가해왔다.
- 2017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민 1,479,247명 가운데 유학생은 117,127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9%를 차지하고, 대전지역은 외국인 주민 총 20,534명 가운데 유학생은 6,003명으로 29.2%로 전국에서 외국인 대비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충청지방통계청, 2018¹⁴⁾).
- 실제로 대전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과 등록금 인상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의 보충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측면

12) 2018년 1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은 2017년 11월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임

13) 충청투데이, 2018년 12월 25일자, “등록금 인상 가로막힌 지역 대학...“유학생이 돌파구”” ; 금강일보, 2019년 1월 10일자,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 모집도 난항”

14) 충청지방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충청지역 외국인통계, http://www.kostat.go.kr/office/ccro/rocc_nw/2/6/index.board?bmode=read&aSeq=372141, 2019년 1월 29일 검색

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그리고 이들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지식산업 시대의 우수 인재 발굴과 유치와 같은 지역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지역대학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동일하게 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경향신문¹⁵⁾).

- 외국인 유학생이 대전에 많은 이유와 이들이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전에서 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대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들은 인구학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대전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 효과,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파악이 시급하다. 유학생과 지역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대학의 관점과 함께 지역 사회의 관점 등 다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연구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본 연구는 1) 늘어나는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2) 이들이 대전에서 유학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3) 이들의 성장에 대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4) 지역적 관점에서 대전이 외국인 유학생과 어떤 협력적 관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5) 경향신문, 2019년 1월 17일자,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살지유”

2. 연구방법과 내용

- 본 연구는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를 위해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통계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 및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기타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선행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 유학생 지원과 활용 방안 등 유학생 관련 연구와 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전문가조사와 외국인 유학생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 통계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법무부의 통계월보와 통계연보,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 대전시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파악했다.
- 문헌 조사 : 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자료,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현황을 파악했다.
- 심층면접 :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 대전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관리자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 멘토
- 전문가조사 및 자문: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강의 경험 교수 2명 파일럿 인터뷰
 - 이주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 자문

□ 연구내용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현황 :
 - 대학별, 과정별, 출신 국가별,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대전시 구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 구별·성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지역 생활 경험
- 졸업 후, 생애 기획: 취업 및 귀환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과 정책과제

유학생 관련 논의

1. 이동하는 학생들

2장

2장 유학생 관련 논의

1. 이동하는 학생들

1) 국경을 넘는 학생에 대한 정의

□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과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

- 국경을 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유학은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이 되었고, 유학생 수용국의 관련 기관들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유학생의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증가세와 다르게, 유학생 등록 통계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른 정의 혹은 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에 따라 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과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으로 분류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¹⁶⁾과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¹⁷⁾의 정의는 개별국가의 교육시스템에 따라 다르다¹⁸⁾. 일반적으로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은 학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국가나 영토(country, or territory of origin)를 떠나 다른 국가나 영토로 이동한 사람이며,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은 자신의 국가(home country)의 외부 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시민(non-citizen)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를 위해 국경을 꼭 넘을 필요는 없다(UNESCO, 2006; OECD, 2006). 실제 국제학생과 외국인

16) Foreign students are students who do not have the citizenship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studied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Annex 3, <http://dx.doi.org/10.1787/eag-2018-36-en>). Net graduation rates represent the estimated percentage,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17) International students are those students who left their country of origin and moved to another country for the purpose of study. (OECD, 2018)

18)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student)

유학생의 구별은 말처럼 쉽지 않다¹⁹⁾.

-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이 더 널리 쓰이는데,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은 그들이 등록하고, 데이터가 수집되는 국가의 시민이 아닌 개인이다²⁰⁾. 이들은 그 국가에서 태어나고, 오랜 기간 머무르지만 국제적으로 이동한 사람으로 썬 되어지는데, 국가마다 이주법과 이동과 관련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구별은 쉽지 않다(OECD, 2018:225; OECD, 2006)²¹⁾.
- 이주민의 국적에 관해 국가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을 이해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스위스보다 영주권자를 이주민 인구로 보는 경향이 높다.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 비율은 호주가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의 개념에 기반한 통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의 부분집합으로 해석된다(OECD, 2018:225; OECD, 2006).
- 미국의 국제학생은 영주권자나 시민, 거주 외국인, 난민의 정의에서 벗어나 중등교육 이상 과정에서 학문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비자를 받은 공부하는 비이민자 개인이다. “Individual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on a non-immigrant, temporary visa that allows for academic study at the post-secondary level.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citizens, resident aliens, and refugees are excluded from this definition”
- 캐나다의 국제학생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목적으로 이민당국자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일정 기간 거주자이다. “temporary residents who

19)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Global Education Digest (2006)

20) Foreign students are those who are not citizen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enrolled and there the data are collected

21) International students are those who left their country of origin and moved to another country for the purposed of study

have been approv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o study in Canada. The study permit identifies the level of study and the length of time the individual may study in Canada.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need a study permit for courses of six months or less if they will finish the course within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upon entry, which is usually six months. Every foreign student must have a student authorization, but may also have been issued other types of permits or authorizations”

- 호주의 국제학생은 호주에 있는 기관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받은 사람이다. “A student on a student visa studying in Australia with an institution registered to deliver courses to such students. Students from New Zealand are not included in the student enrolment counts as they do not require a student visa”
- 일본의 국제학생은 학생비자를 받아 일본에 있는 대학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A student from foreign economy who is receiving an education at any Japanese university, graduate school, junior college, college of technology, professional training college or university preparatory course and who resides in Japan with a ‘college student’s visa status”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유학생을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이다. 따라서 유학생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 한국 내에서 유학 관련 비자는 D-2에 해당하는데, 출입국법무부의 ‘체류 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유학생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²²⁾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 과정, 교환학생 등을 포함한다.

[표 2-1] 한국 내 유학 관련 비자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D-4-1	대학부설어학원연수 ²³⁾
D-4-3	초중고생 ²⁴⁾
D-4-7	외국어 연수 ²⁵⁾

2) 국경을 넘는 학생의 경향

□ 국제적 이동성의 증가

-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OECD 국가 1인당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노동생산성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지식과 기술이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있다. 또한 교육이 개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보상이 높다는 국가별 분석도 나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2) (하이코리아)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23)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서 한국어 어학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24)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25)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어학원에서 외국어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OECD 국가들 간의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증가도, 학생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한 이유다.

- 구체적인 유학생의 증가는 OECD와 UNESCO의 통계에서 확인된다. 2004년 시민권(citizenship) 경계 외부에 등록한 학생은 2백7십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8%가 증가한 규모다. 프랑스, 독일과 일본,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 수치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OECD 외부 국가 가운데에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온 국제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OECD, 2006, 2007²⁶⁾). 2006년 2백 9십만 명의 학생이 시민권이 없는 국가에 등록했고, 이들의 49%가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로 이동했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유학생이 제일 많다. 이외 국가에서는 중국과 인도 유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OECD, 2008²⁷⁾). 2013년 국제학생 수는 4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에 등록한 국제학생의 53%는 아시아에서 이동한 개인이며, 중국은 가장 많은 유학생을 내보내는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유학생의 증가는 국가 간 경제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화된 노동시장 영역에서 고용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개인의 시도이자, 이들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려는 정부 및 대학기관의 의도에 기인한다.
- 한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 및 국가들의 노력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유를 대표하기도 한다. 유능하고 젊은 학생이 다른 국가로 이동이 증가하면서, 인재 유출(brain drain) 위험도 문제가 되었는데, 유학을 떠난 상당수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와 유학 국가와 본국 간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출보다는 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OECD, 2015).

26)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37376068.pdf>

27)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시기별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성의 특성

○ 라홀(Choudaha, Rahul, 2017²⁸)은 학생의 국제이동을 3시기로 구분한다. Wave I은 2001년 테리, Wave II는 세계경제불황, Wave III는 중국 경제둔화, 영국의 유럽연합 관련 국민투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은 사건을 특성으로 한다. 첫 시기(1999-2006)는 유학생은 경제와 기술발전을 위한 고도로 숙련된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 출신이 많았고, 기관들 또한 ICT 분야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시기였다. 이 시기 해외로 가는 중국 학생은 231% 증가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과 한국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기간 유학생은 우수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2006-2013)시기, 첫 번째 시기와 다르게 중국 중산층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서, 자비유학생이 증가했다. 이 시기 유학생은 대학교, 특히 경제 관련 분야 학생이 많았다. 이시기는 국제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영어에 대해 덜 관심이 적은 학생을 유치하려는 기관들이 많아졌다. 즉 유학생에 대한 등록기준이 낮아지면서, 교육기관들은 언어와 글쓰기, 취업 및 상담과 같은 분야까지 지원해야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라홀은 마지막 시기(2013-2020)를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시기로 보는데, 전통적인 유학목적국인 미국과 영국의 노동 및 이주기회가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유학생 유출국이었던 중국과 일본, 한국이 새로운 유학목적국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국 학생이 유학국의 이주정책이나 유학기관에서 커리어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외 유학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 앞의 세 시기에 따른 유학생의 이동은 변화를 보이는데, 이들 이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목적국과 목적 교육기

28) Choudaha, Rahul(2017), "Three wave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1999-2020)", 2019년 1월 30일 검색, <https://drive.google.com/file/d/0B4RmnCsexL7ZckFpR1FXVFFQZ2M/view>

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졸업 후 유학생의 경력과 취업 가능성에 대한 지원이 유학생의 중요해지고 있다.

□ 글로벌 관점의 정책적(policy) 맥락

- OECD(2010)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방을 동반한 자본과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순환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로 확산되었다. 세계 경제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작동되는 국제적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기술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찾고 있다. 청년들은 다른 사회의 언어와 지식을 획득하여, 노동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선호하고 있다.
- 여러 국가들은 국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이동성을 촉진하는 정책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는 2020년까지 졸업생의 20%를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훈련받도록 하는 블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²⁹⁾)에 가입했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캠퍼스 확대를 비롯해 교육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Rahul, 2017). 교육의 국제화는 유학생이 지불하는 학비와 일상생활에서는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며, 국가 및 교육기관은 이로부터 이익을 얻어 있다.
-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개인을 차별화하는 경험이자 스펙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학생의 이동은 최근에 국가 및 지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수준 높은 교육에 접근하고, 자국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을 획득하고, 좋은 고용조건에 다가갈 수

29) Bologna Process는 1999년 유럽연합 소속국가들이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하여 유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출범한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가맹국 내에서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 모든 국가를 넘나들 수 있고, 유럽의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 대학경쟁력 강화와 인재확보를 목적으로 함.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유학생은 유학 국가의 수입에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몇몇 국가는 유학생의 학비를 국내 학생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고, 또한 유학생들은 주거와 소비생활을 통해 유학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도 한다.

-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은 글로벌 인재 풀을 구축하고, 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 분야의 시스템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이자, 노동력 공급에서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출신국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유학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대학 및 기관들이 내국인 학생을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반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 국제학생의 이동성 증가가 국가 인재풀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게 계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유학생은 노동시장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고, 지식생산,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OECD, 2018: 218). 이런 맥락에서 대학들은 대학 순위에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 설비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와 같은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은 해외캠퍼스를 세우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입학 규칙을 변경하며, 외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온라인 수업과 국제 인터넷 제공, 이중학위를 제공하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

□ 국제적 이동하는 학생들의 특성

-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다. 즉 박사과정에 등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3차 교육(tertiary education³⁰⁾)에 등록하는 국제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6%에 그치지만, 박사프로그램의 26%를 대표하고 있어 적은 수치는 아니다. 2016년 박사학위를 해외에서 처음 졸업한 국제학생은 OECD 국가 학

30) 제3차교육(tertiary education)은 대학 및 직업교육 과정을 총칭함

생의 26%가량이었고, 이는 석사 및 이와 유사한 학위를 졸업한 국제 학생 17%나 학사학위를 받은 7%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은 박사과정 유학생이 가장 많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이다. 룩셈부르크 박사과정 학생의 85%가, 스위스의 55%가 유학생이다.

- 국제학생이 선호하는 분야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과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으로, 2016년 기준 이 분야에 등록한 총 학생의 1/3이 이들이다. 이들은 자연과학, 수학과 통계, ICT 분야 학생의 9%이고, 엔지니어링, 제조와 건설의 7%에 달한다(OECD, 2018³¹⁾).
- 2016년 OECD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등록한 국제학생은 3.5백만 명으로, 이들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는 경향을 보인다. 언어나 역사적 연결성, 지리적 거리, 국가 간 관계 및 정치적 상황이 유학생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 아시아 유학생은 대부분 OECD 국가, 특히 호주와 영국, 미국을 향하고, 호주유학생의 87%, 미국 유학생의 77%, 캐나다 유학생의 61%, 영국 유학생의 52%가 아시아 출신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요한 유학생 목적국이다. 프랑스 유학생의 42%는 아프리카 출신이다.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프랑스 유학생의 21%, 독일 유학생의 36%를 차지한다.
- 최근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박사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지원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박사 수준의 프로그램에 새로운 입학자의 상당수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식 및 정보 생산과 유통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가 출현하면서, 국제학생의 비율은 높아지며, 국제학생의 증가는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31)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http://www.cnedu.pt/content/noticias/internacional/Education_at_a_glance_2018.pdf, 2019년 1월 31일 검색

- 한편, OECD 국가의 인구에서 이주 때문에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이 지난 20년 동안 평균 6%에서 8%로 증가했다. 따라서 교육 초기단계부터 이들에 대한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에서 태어난 성인,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은 교육에 덜 참여하고, 노동시장의 성공도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대학이나 그와 동등한 프로그램을 졸업한 이주민 1.2세대들은 과소대표 되는 경향을 보인다. 26세 이상의 나이에 이주국에 도착한 외국출생 성인은 내국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25세 이전에 이주국에 도착한 이주민보다 공식, 비공식 교육에 덜 참여한다.
- 국제학생의 상당수가 박사학위인데, 이 가운데 약 40%가량이 여성이다. 여성은 대부분 국가의 박사학위 과정 국제학생의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 국가에서는 성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3) 지역 유학생 관련 연구

□ 한국유학의 이유

-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인접성, 미국, 일본 등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용,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로 인한 한국 기업의 중국인 고용 증대”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김상욱·윤지원, 2017³²⁾).
- 미국이나 일본 등 보다 한국의 유학조건이 낫다는 이유도 있다. 유학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외에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국을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손교교, 2012).

32) 김상욱·윤지원(2017),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지수의 지역별 비교-서울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4), 157-184.

- 전통적 유학선호국인 미국과 유럽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대학으로 유학 목적지를 선택한 아시아 학생의 동기는 “지리적 인접성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록금, 생활비 등 현실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사회, 문화적 요구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자 “글로벌 학위와 한국어 등 문화 자본을 통해 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하다 (이민경, 2012: 196-197³³⁾). 이런 맥락에서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다수를 이루는 한국 및 지역대학이 유학생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선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충족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유치가 어떤 경향을 띠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대학 적응

- 대학 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어 능력의 부족이 한국인 동료나 교수와의 관계를 쌓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이은실, 2008).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는데, 한국어 수준이 높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Zou Zhen dong, 2009).
- 특정 지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전북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친구지지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이공계보다 문화사회계열이,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환경을 인식하는 것이나 적응하는 것 모두 언어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은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주요한 역할로 드러나고 있다(곽용, 2011³⁴⁾).

33)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권2호, 177-201.

- 한편 대전지역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손교교, 2012³⁵⁾),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으로 이로 인해 한국인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중국 유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이 크다는 기존 연구에 반대의 의견도 있다. 리통(2009³⁶⁾)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국 학생들이 영어 및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영어를 배우려는 태도에 적극적이지만,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한국에서 충분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는 스트레스가 적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언어보다는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대전지역에 관한 다른 연구는(이혜성, 2012³⁷⁾),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학금이나 기숙사 제공과 같은 기본적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중국 유학생 유치 및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유학생의 정체성

-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 외국인 학생을 ‘유학생’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동해 교육을 받는 유학생이 교육이라는 행위 이외에 집을 구하고, 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일상생

34) 광용(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환경 지각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논문

35) 손교교(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36) 리통(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37) 이혜성(2012), 중국유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내 축제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및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활을 지속하는 이주자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김도혜, 2019).

- 이처럼 유학생의 생활이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해받기도 한다. 이들은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된 세계의 상품과 자본, 매스미디어, 사상과 노동력 등 모든 종류의 이동이 개방된 중심에 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책의 관리와 제한이라는 경계에 서 있다. 이들은 이주국의 관점에서 비밀스런 노동자이기도 하고, 불법이주민이자 테러리스트로 악마화 되기도 한다(King, R., Findlay, A. & Ahrens, J.,(2010)³⁸⁾).

38) King, R., Findlay, A. & Ahrens, J.,(2010),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literature reievw. Report to HEFCE.

대전 유학생 현황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2. 대전 외국인 유학생
3.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3장

3장 대전 유학생 현황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1) 국내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경향

- 2003년 12,314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142,205명으로 약 11.5배 증가했다.
- 추세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세에 있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아니라 증감률로 본다면,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한 해는 2006년과 2007년이다. 2006년 44.5%가 2007년에는 51.3%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있었다. 2008년 이후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세는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3년 동안은 유학생의 숫자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 2014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세이지만,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와 변동은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1] 국내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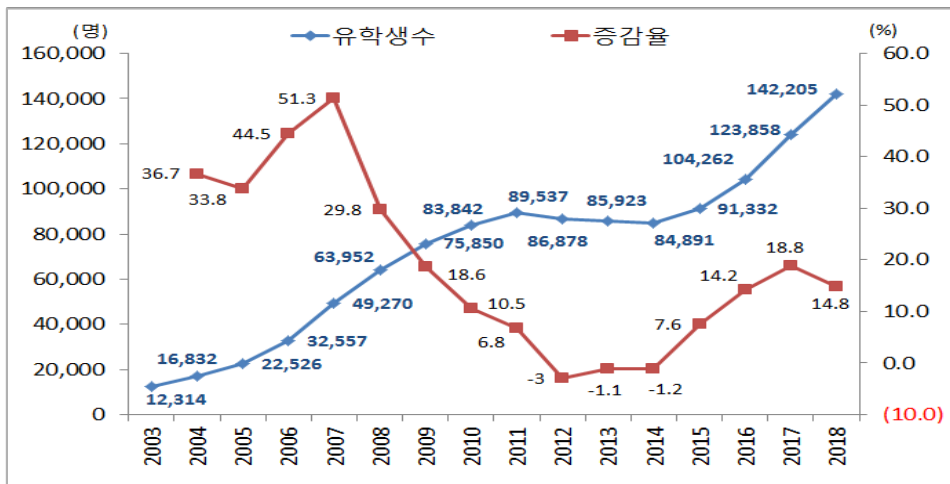
연 도	유학생 수	증감	증감률
2003	12,314	-	-
2004	16,832	4,518	36.7
2005	22,526	5,694	33.8
2006	32,557	10,031	44.5

2007	49,270	16,713	51.3
2008	63,952	14,682	29.8
2009	75,850	11,898	18.6
2010	83,842	7,992	10.5
2011	89,537	5,695	6.8
2012	86,878	-2,659	-3.0
2013	85,923	-955	-1.1
2014	84,891	-1,032	-1.2
2015	91,332	6,441	7.6
2016	104,262	12,930	14.2
2017	123,858	19,596	18.8
2018	142,205	18,347	14.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주: 1)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주: 2) 전년대비 증감률= {해당년도 자료-전년자료}/(전년자료)×100



[그림 3-1] 국내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2) 국내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 국내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자비 유학생이 127,647명(8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초청 장학생 8,093명(5.7%), 정부초청장학생 2,758명(1.9%), 자국정부파견장학생 663명(0.5%) 순으로 나타났다.
- 자비 유학생이 유학형태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지불하는 유학의 비용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대학교육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 감독,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3-2]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연도	합 계	자비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파견장학생	기타
2018	142,205	127,647	2,758	8,093	663	3,044
	(100.0)	(89.8)	(1.9)	(5.7)	(0.5)	(2.1)
2017	123,858	110,472	3,175	7,225	842	2,144
	(100.0)	(89.2)	(2.6)	(5.8)	(0.7)	(1.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3) 국내 학위과정별 전공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 국내 학위과정별·전공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57,158명(6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학계열 12,974명(15.1%), 예체능 계열 9,151명(10.6%), 자연과

학계열 6,010명(7.0%), 의학 계열 74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 과정별로는 전문대학과 대학과정인 학부과정이 56,09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석사과정이 21,429명, 박사과정은 8,510명임. 학부와 석사과정은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정이 유사하다.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고, 공학, 예체능, 자연과학, 의학 순이다.
- 박사과정은 학부나 석사과정과 달리 특정 전공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이 몰리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있는 특성을 보인다. 인문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의 차이가 채 100명이 안 되고,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분야의 박사과정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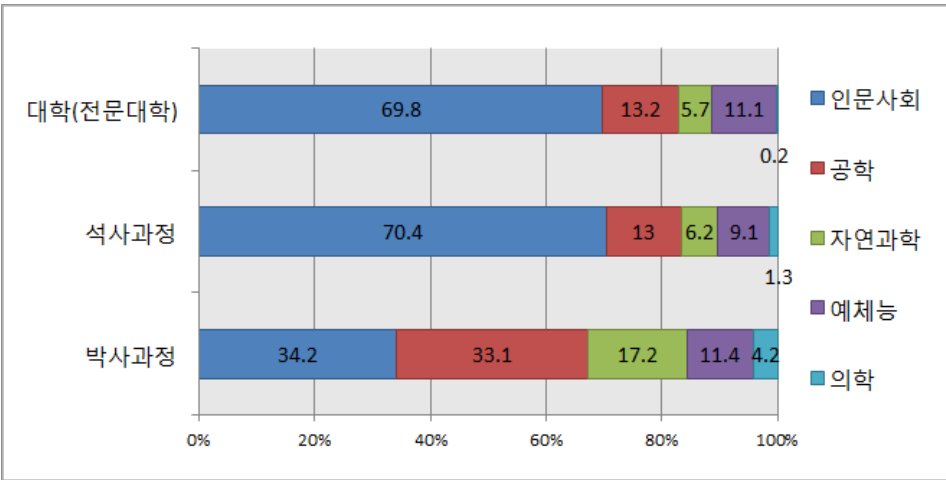
[표 3-3] 국내 2018년 학위과정별 전공과정별 현황

(단위: 명, %)

학위과정	계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과학	예체능	의학
전체	86,036 (100.0)	57,158 (66.4)	12,974 (15.1)	6,010 (7.0)	9,151 (10.6)	743 (0.9)
대학(전문대학)	56,097 (100.0)	39,161 (69.8)	7,378 (13.2)	3,220 (5.7)	6,225 (11.1)	113 (0.2)
석사과정	21,429 (100.0)	15,090 (70.4)	2,778 (13.0)	1,325 (6.2)	1,960 (9.1)	276 (1.3)
박사과정	8,510 (100.0)	2,907 (34.2)	2,818 (33.1)	1,465 (17.2)	966 (11.4)	354 (4.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주: 1) 비학위과정(56,169명)은 전공과정이 없으므로 제외.



[그림 3-2] 국내 2018년 학위과정별 전공과정별 현황

4) 국내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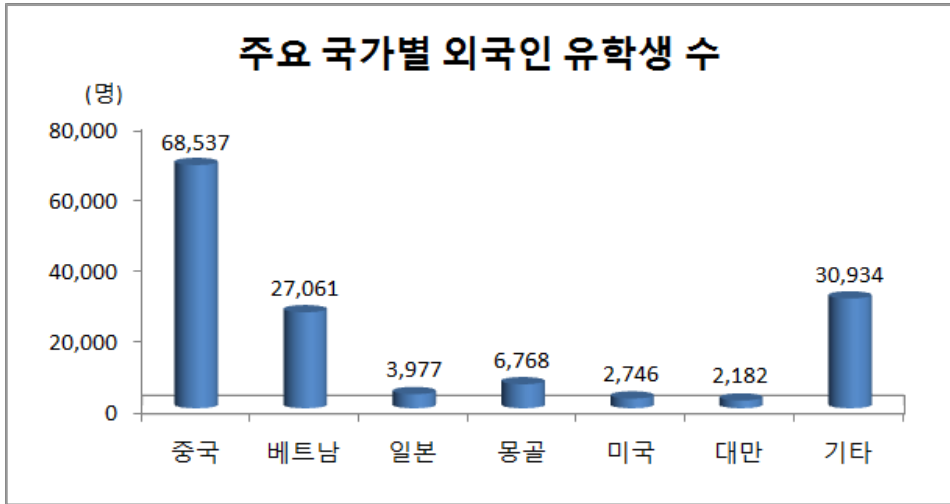
- 2018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68,537명 (48.2%)으로 가장 많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거의 절반이 중국 출신인 셈이다.
- 다음으로는 베트남 27,061명(19.0%), 몽골 6,768명(4.8%), 일본 3,977명(2.8%), 미국 2,746명(1.9%), 대만 2,182명(1.5%) 순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60%가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다.

[표 3-4] 국내 2018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국가	계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미국	대만	기타
인원	142,205	68,537	27,061	3,977	6,768	2,746	2,182	30,934
비율	100.0	48.2	19.0	2.8	4.8	1.9	1.5	21.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그림 3-3] 국내 2018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5) 국내 학위과정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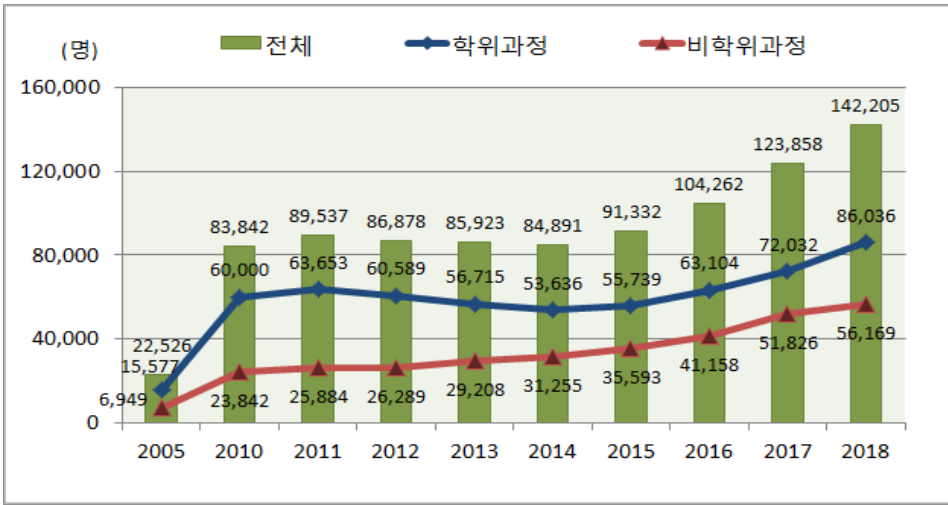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을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연수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위과정 중인 유학생 수는 2005년 15,577명에서 2018년 86,036명으로 약 5.5배로 증가했으며, 비학위과정(연수생) 중인 유학생 수는 2005년 6,949명에서 2018년으로 56,169명으로 약 8.1배 증가했다.
- 비학위과정 유학생과 학위과정 유학생의 수는 증감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언어 연수 후, 한국어 급수를 취득한 후에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패턴을 고려하여, 언어연수생과 학위과정생의 지원 차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하다.

[표 3-5] 국내 2005~2018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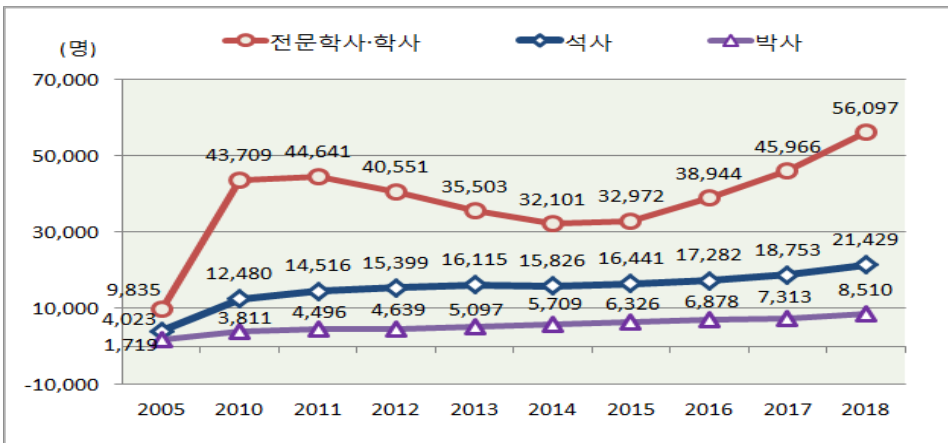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소계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2005	22,526	15,577	9,835	4,023	1,719	6,949	5,212	1,737
2010	83,842	60,000	43,709	12,480	3,811	23,842	17,064	6,778
2011	89,537	63,653	44,641	14,516	4,496	25,884	18,424	7,460
2012	86,878	60,589	40,551	15,399	4,639	26,289	16,639	9,650
2013	85,923	56,715	35,503	16,115	5,097	29,208	17,498	11,710
2014	84,891	53,636	32,101	15,826	5,709	31,255	18,543	12,712
2015	91,332	55,739	32,972	16,441	6,326	35,593	22,178	13,415
2016	104,262	63,104	38,944	17,282	6,878	41,158	26,976	14,182
2017	123,858	72,032	45,966	18,753	7,313	51,826	35,734	16,092
2018	142,205	86,036	56,097	21,429	8,510	56,169	41,661	14,50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3-4] 국내 2005~2018 외국인 유학생 수

-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분류해보면, 전문학사·학사는 2005년 9,835명에서 2018년 56,097명으로 약 5.7배, 석사는 2005년 4,023명에서 2018년 21,429명으로 약 5.3배, 박사는 2005년 1,719명에서 2018년 8,510명으로 약 5.0배 증가했다.
- 학사, 석사, 박사 모든 학위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5배 이상의 큰 증가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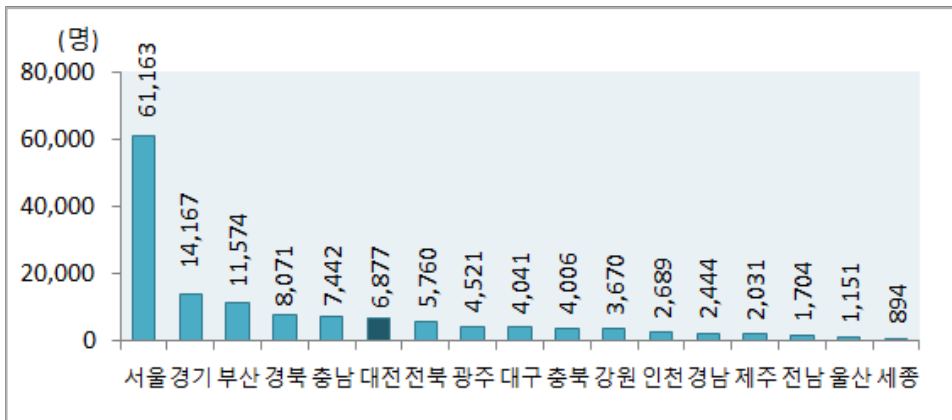


[그림 3-5] 국내 2005~2018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2. 대전 외국인 유학생

1) 대전 외국인 유학생 수

- 2018년 대전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6,87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큰 유학생 규모를 갖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 61,16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 14,167명, 부산 11,574명, 경북 8,071명, 충남 7,442명 순이다.
- 대전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6번째로 많지만, 실제 인구나 지역의 규모에 비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많은 편이다.



[그림 3-6]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 시도별 순위

[표 3-6] 시도별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시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42,205	(100.0)	60,402	(42.5)	81,803	(57.5)
서울	61,163	(100.0)	20,385	(33.3)	40,778	(66.7)
부산	11,574	(100.0)	5,270	(45.5)	6,304	(54.5)
대구	4,041	(100.0)	2,037	(50.4)	2,004	(49.6)
인천	2,689	(100.0)	1,236	(46.0)	1,453	(54.0)
광주	4,521	(100.0)	2,329	(51.5)	2,192	(48.5)
대전	6,877	(100.0)	3,345	(48.6)	3,532	(51.4)
울산	1,151	(100.0)	700	(60.8)	451	(39.2)
세종	894	(100.0)	443	(49.6)	451	(50.4)
경기	14,167	(100.0)	6,901	(48.7)	7,266	(51.3)
강원	3,670	(100.0)	1,981	(54.0)	1,689	(46.0)
충북	4,006	(100.0)	2,051	(51.2)	1,955	(48.8)
충남	7,442	(100.0)	3,456	(46.4)	3,986	(53.6)
전북	5,760	(100.0)	2,964	(51.5)	2,796	(48.5)
전남	1,704	(100.0)	869	(51.0)	835	(49.0)
경북	8,071	(100.0)	4,100	(50.8)	3,971	(49.2)
경남	2,444	(100.0)	1,285	(52.6)	1,159	(47.4)
제주	2,031	(100.0)	1,050	(51.7)	981	(48.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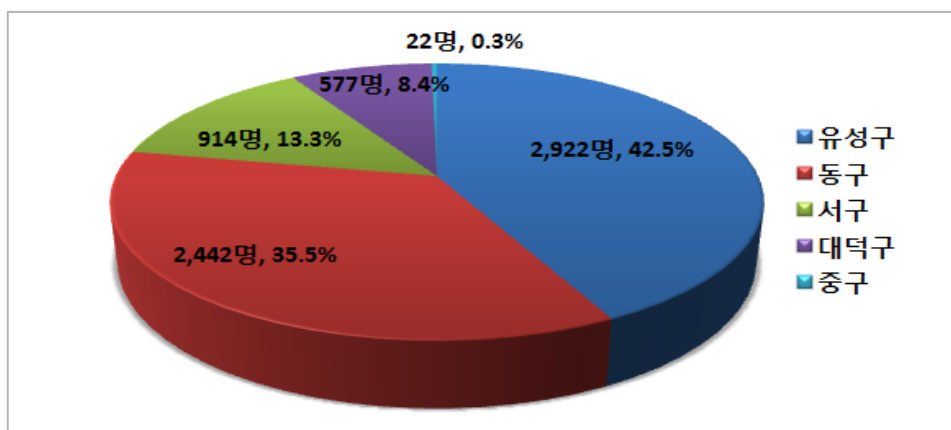
- 2018년 기초자치구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2,922명(42.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2,442명(35.5%), 서구 914명(13.3%), 대덕구 577명(8.4%), 중구 22명(0.3%) 순이다.

[표 3-7] 2018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6,877	2,442	22	914	2,922	577
%	100.0	35.5	0.3	13.3	42.5	8.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3-7] 2018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수

2) 대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 2003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남성 192명, 여성 122명으로 총 314명이었다. 2018년 여성 3,532명, 남성 3,345명, 총 6,877명으로, 15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1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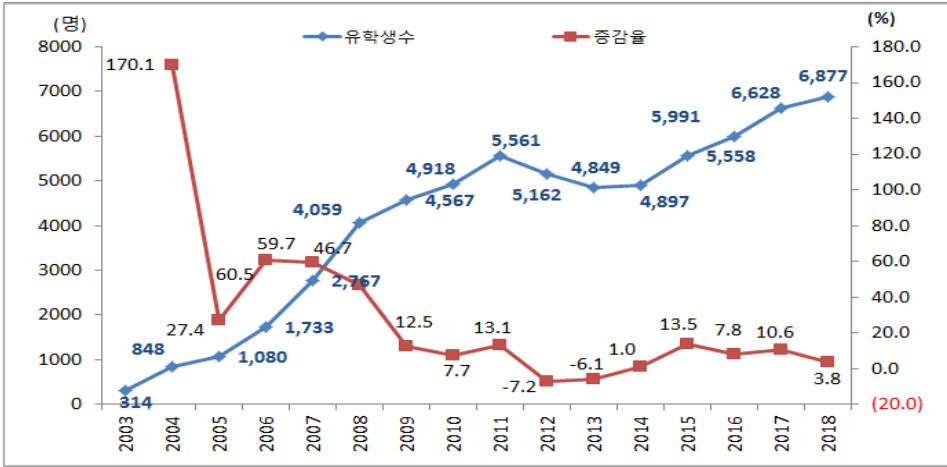
-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감소했던 것에 비해,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증감현상을 성별로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성 외국인 유학생이 여성보다 많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남성 수를 앞질렀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시기에 다시 남성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여성을 앞지르다가, 이 이후에 다시 여성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했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표 3-8] 대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연 도	유학생 수			증감	증감율
	계	남자	여자		
2003	314	192	122	-	-
2004	848	486	362	534	170.1
2005	1,080	613	467	232	27.4
2006	1,733	951	782	653	60.5
2007	2,767	1,435	1,332	1,034	59.7
2008	4,059	2,069	1,990	1,292	46.7
2009	4,567	2,251	2,316	508	12.5
2010	4,918	2,407	2,511	351	7.7
2011	5,561	2,776	2,785	643	13.1
2012	5,162	2,614	2,548	-399	-7.2
2013	4,849	2,467	2,382	-313	-6.1
2014	4,897	2,420	2,477	48	1.0
2015	5,558	2,680	2,878	661	13.5
2016	5,991	2,830	3,161	433	7.8
2017	6,628	3,175	3,453	637	10.6
2018	6,877	3,345	3,532	249	3.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그림 3-8] 대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3) 대전 학위과정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080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6,877명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 대전의 외국인 유학생을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연수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위과정 중인 유학생 수는 2005년 903명에서 2018년 4,746명으로 약 5.3배로, 비학위과정 중인 유학생 수는 2005년 177명에서 2018년으로 2,131명으로 약 12.0배 증가했다.
- 학위과정 유학생 수와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를 비교하면, 2018년 현재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4,746명으로 비학위과정(연수생) 유학생 수는 2,131명보다 2.2배가량이 많다.
- 학위과정별로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 전문학사·학사는 2005년 366명에서 2018년 2,703명으로 약 7.4배,
 - 석사는 2005년 328명에서 2018년 1,159명으로 약 3.5배,
 - 박사는 2005년 209명에서 2018년 884명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비율상, 숫자상으로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은 전

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대전 2005~2018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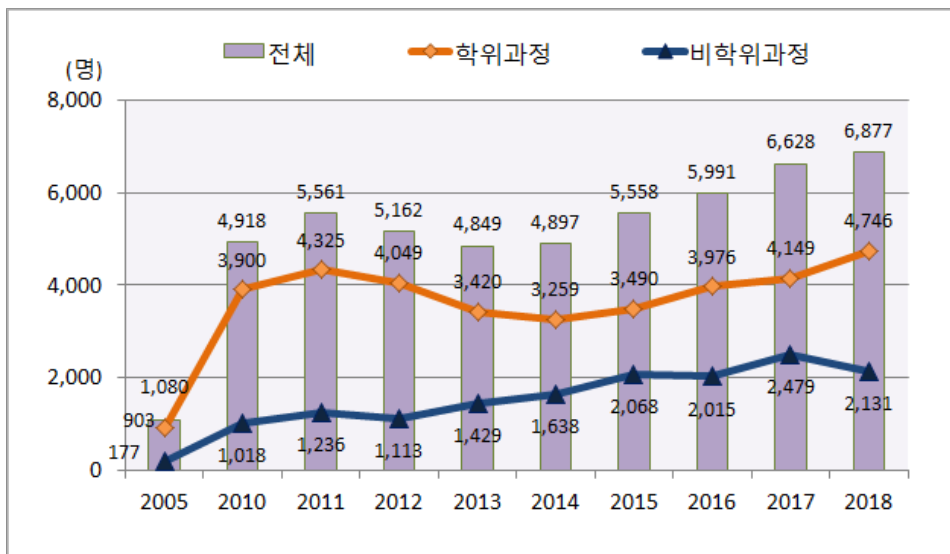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전문학 사·학 사	석사	박사	소계	어학연 수생	기타1) 연수생
2005	1,080	903	366	328	209	177	102	75
2010	4,918	3,900	2,760	839	301	1,018	603	415
2011	5,561	4,325	2,806	1,024	495	1,236	758	478
2012	5,162	4,049	2,463	1,080	506	1,113	568	545
2013	4,849	3,420	1,836	1,080	504	1,429	461	968
2014	4,897	3,259	1,713	1,008	538	1,638	664	974
2015	5,558	3,490	1,838	1,011	641	2,068	937	1,131
2016	5,991	3,976	2,207	1,048	721	2,015	925	1,090
2017	6,628	4,149	2,348	1,063	738	2,479	1,114	1,365
2018	6,877	4,746	2,703	1,159	884	2,131	1,023	1,10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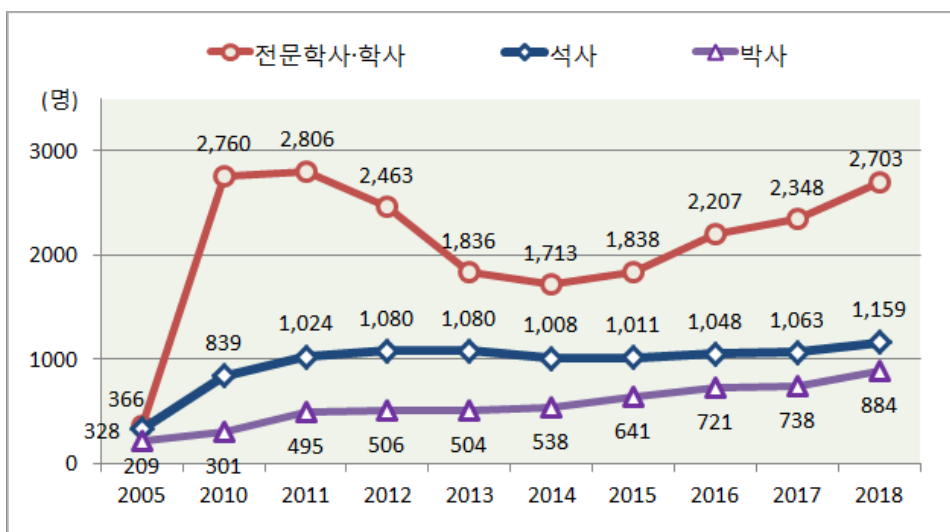
주: 1) 기타 1)에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등이 포함됨

주: 2) 조사기준일 : 해당연도 4월 1일

주: 3) 연수생 및 기타 외국인 학생의 경우 2004년부터 조사됨



[그림 3-9] 대전 2005~2018 외국인 유학생 수



[그림 3-10] 대전 2005~2018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4) 대전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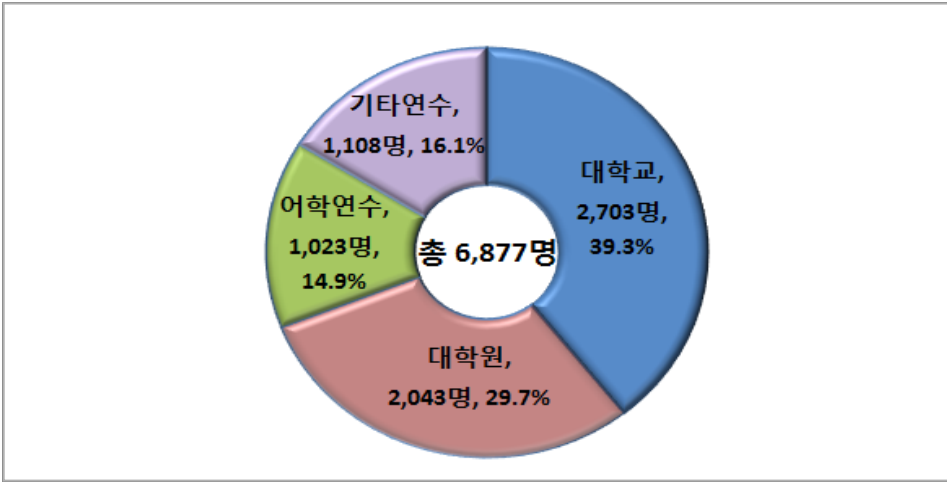
-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대전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6,877명이다. 대전지역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은 우송대학교(본교)이다.
- 외국인 유학생은 우송대학교에 2,066명, 충남대학교 1,458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844명, 한남대학교 576명, 배재대학교 548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93명, 목원대학교 284명, 대전대학교 282명, 한밭대학교 206명, 우송정보대학 78명, 건양대학교 68명, 침례신학대학교 22명, 건양사이버대학교 14명, 대전보건대학교 13명, 건신대학원대학교 12명, 을지대학교 9명,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3명, 대전신학대학교 1명 순이다.
- 2018년 대전지역 대학 전체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대학교 과정이 2,703명 (3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 2,043명 (29.7%), 어학연수 1,023명(14.9%), 기타연수 1,108명(16.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대전지역 4년제 대학교만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우송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카이스트에 특정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집중되어 있다. 충남대학교에는 어학연수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 및 석사과정, 기타연수 과정은 우송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집중되어 있다.
-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카이스트에 가장 많다.
- 충남대학교의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508명, 우송대학교의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1,137명, 우송대학교의 석사과정은 358명, 우송대학교의 기타연수 외국인 유학생은 508명,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196명이다.

[표 3-10] 2018년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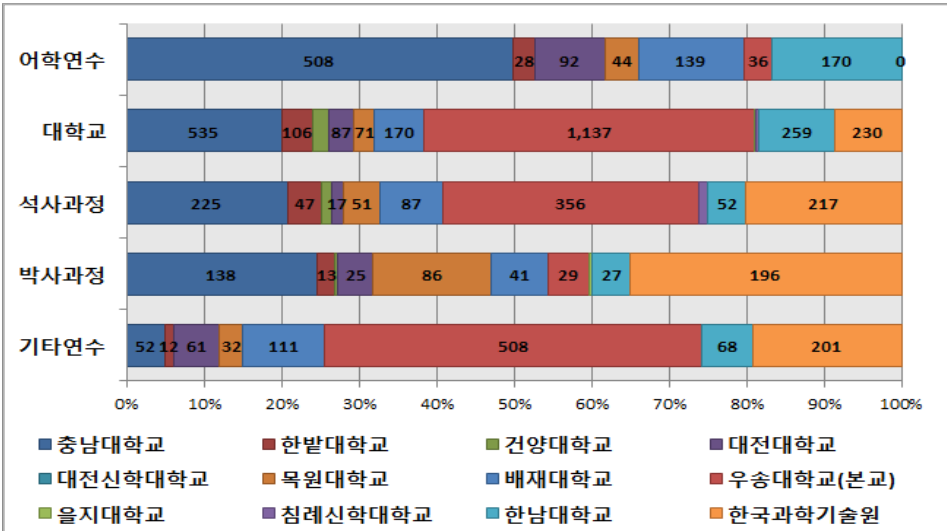
(단위: 명)

설립 구분	학교명	합계	과정별					
			어학 연수	대학교	대학원			기타 연수
					전체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전체	전체	6,877	1,023	2,703	2,043	1,159	884	1,108
국립	충남대학교	1,458	508	535	363	225	138	52
국립	한밭대학교	206	28	106	60	47	13	12
사립	건양대학교	68	0	53	15	13	2	0
사립	대전대학교	282	92	87	42	17	25	61
사립	대전신학대학교	1	0	1	0	0	0	0
사립	목원대학교	284	44	71	137	51	86	32
사립	배재대학교	548	139	170	128	87	41	111
사립	우송대학교(본교)	2,066	36	1,137	385	356	29	508
사립	을지대학교	9	0	6	3	0	3	0
사립	침례신학대학교	22	0	9	13	13	0	0
사립	한남대학교	576	170	259	79	52	27	68
특별법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844	0	230	413	217	196	201
사립	대전보건대학교	13	6	6	0	0	0	1
사립	우송정보대학	78	0	16	0	0	0	62
사립	건양사이버대학교	14	0	14	0	0	0	0
사립	건신대학원대학교	12	0	0	12	8	4	0
기타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393	0	0	393	73	320	0
사립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3	0	3	0	0	0	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3-11] 2018년 대전지역 대학 전체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그림 3-12] 2018년 대전 4년제 대학교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및 비율

5) 대전 학교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약 60%, 정확히 56.7%가 인문사회계열에서

공부하고 있다.

- 이외 외국인 유학생의 25.6%가 공학 계열에서, 9.9%가 자연과학계열에서, 6.4%가 예체능 계열에서, 1.4%가 의학 계열에서 공부하고 있다.

[표 3-11] 2018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전공과정별 현황(전체)

(단위: 명, %)

구분	학위 과정	계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대전지역 대학 전체	계	4,746 (100.0)	2,690 (56.7)	471 (9.9)	1,216 (25.6)	304 (6.4)	65 (1.4)
	학사	2,703 (100.0)	1,819 (67.3)	182 (6.7)	432 (16.0)	246 (9.1)	24 (0.9)
	석사	1,159 (100.0)	661 (57.0)	85 (7.3)	363 (31.3)	30 (2.6)	20 (1.7)
	박사	884 (100.0)	210 (23.8)	204 (23.1)	421 (47.6)	28 (3.2)	21 (2.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 전공별로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의 비율이 67.3%로 제일 높고, 다음이 석사 57.0%, 다음이 박사 23.8% 순으로 나타난다.
- 자연과학계열의 외국인 유학생은 박사의 비율이 2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석사 7.3%, 학사 6.7% 순이다.
- 공학계열의 외국인 유학생은 박사가 47.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석사 과정 31.3%, 학사과정 16% 순이다.
- 예체능 계열은 학사가 9.1%로 제일 높고 다음이 박사 3.2%, 석사가 2.6% 순으로 나타난다.

- 의학 계열은 박사과정 2.4%, 석사과정 1.7%, 학사과정 0.9% 순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과정이 많고,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은 박사과정이 제일 많은 경향을 보인다.

[표 3-12] 2018년 대전지역 주요 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전공과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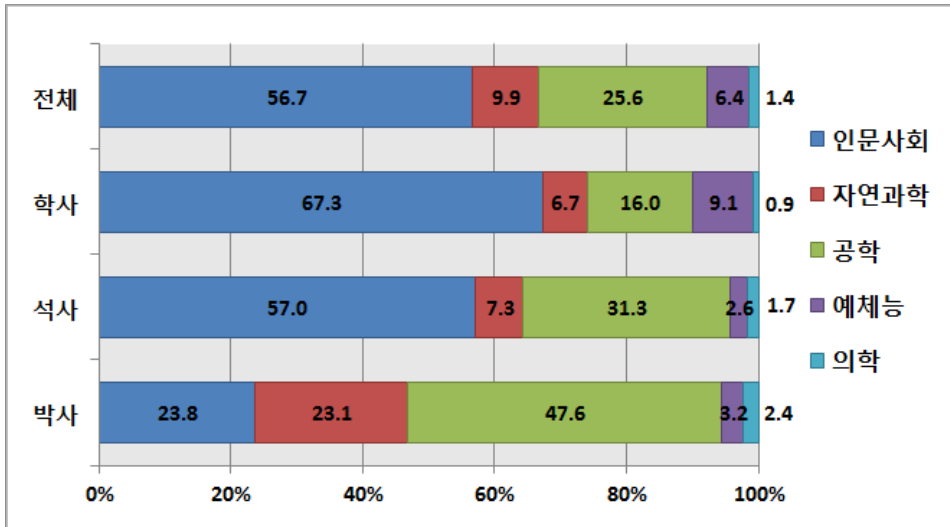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학위 과정	계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충남 대학 교	계	898 (100.0)	561 (62.5)	187 (20.8)	99 (11.0)	11 (1.2)	40 (4.5)
	학사	535	391	86	56	0	2
	석사	225	131	46	22	7	19
	박사	138	39	55	21	4	19
한밭 대학 교	계	166 (100.0)	78 (47.0)	4 (2.4)	77 (46.4)	7 (4.2)	0 (0.0)
	학사	106	70	0	31	5	0
	석사	47	6	4	35	2	0
	박사	13	2	0	11	0	0
대전 대학 교	계	129 (100.0)	83 (64.3)	25 (19.4)	9 (7.0)	7 (5.4)	5 (3.9)
	학사	87	57	15	5	7	3
	석사	17	8	6	2	0	1
	박사	25	18	4	2	0	1
목원 대학 교	계	208 (100.0)	130 (62.5)	9 (4.3)	1 (0.5)	68 (32.7)	0 (0.0)
	학사	71	35	6	1	29	0
	석사	51	32	3	0	16	0
	박사	86	63	0	0	23	0

구분	학위 과정	계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배재 대학 교	계	298 (100.0)	259 (86.9)	13 (4.4)	23 (7.7)	3 (1.0)	0 (0.0)
	학사	170	146	11	11	2	0
	석사	87	79	1	6	1	0
	박사	41	34	1	6	0	0
우송 대학 교(본교)	계	1,522 (100.0)	1198 (78.7)	6 (0.4)	126 (8.3)	192 (12.6)	0 (0.0)
	학사	1,137	886	3	56	192	0
	석사	356	283	3	70	0	0
	박사	29	29	0	0	0	0
한남 대학 교	계	338 (100.0)	266 (78.7)	8 (2.4)	50 (14.8)	14 (4.1)	0 (0.0)
	학사	259	199	5	46	9	0
	석사	52	46	1	1	4	0
	박사	27	21	2	3	1	0
한국 과학 기술 원	계	643 (100.0)	54 (8.4)	76 (11.8)	513 (79.8)	0 (0.0)	0 (0.0)
	학사	230	4	41	185	0	0
	석사	217	50	2	165	0	0
	박사	196	0	33	163	0	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주: 1) 외국인유학생 학위과정 100명 이상 있는 대학 기준임.



[그림 3-13]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 과정별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충남대학교

- 충남대학교에는 총 89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535명, 석사 225명, 박사과정이 138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535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91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86명이 자연과학계열, 공학 계열은 56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225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31명이 인문사회계열, 46명이 자연과학계열, 22명이 공학, 7명이 예체능 계열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138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자연과학계열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문사회계열, 공학 21명, 예체능 4명이다.
- 충남대학교에는 의학 계열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총 40명이 있다. 학부과정이 2명, 석사와 박사과정이 각 19명이다.
- 충남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특징은 의학 계열에 상당한 유학생이 있다는 점이며,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두터운 학생층이 있다.

[표 3-13] 2018년 충남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898	535	225	138
중국	1	635	454	133	48
베트남	2	70	23	22	25
우즈베키스탄	3	28	19	9	0
몽골	4	21	5	11	5
방글라데시	5	21	9	7	5
스리랑카	6	16	0	7	9
미국	7	10	2	2	6
인도	8	10	0	4	6
파키스탄	9	7	0	2	5
일본	10	6	4	1	1
대만	11	5	3	1	1
필리핀	12	5	0	1	4
미얀마	13	5	0	2	3
캐나다	14	5	2	2	1
터키	15	4	1	2	1
캄보디아	16	4	0	2	2
카자흐스탄	17	4	1	2	1
인도네시아	18	3	0	2	1
우간다	19	3	0	2	1
태국	20	2	1	1	0
프랑스	21	2	0	1	1
가나	22	2	0	0	2
네팔	23	2	0	2	0
러시아	24	2	1	0	1
스페인	25	2	0	1	1
홍콩	26	2	2	0	0
나이지리아	27	2	0	0	2
아프가니스탄	28	2	0	1	1
이란	29	2	1	1	0
브라질	30	1	1	0	0
네덜란드	31	1	1	0	0
말레이시아	32	1	0	0	1
모잠비크	33	1	0	1	0
에티오피아	34	1	0	1	0
우크라이나	35	1	0	0	1
탄자니아	36	1	0	1	0
가봉	37	1	1	0	0
동티모르	38	1	0	1	0
라오스	39	1	1	0	0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멕시코	40	1	1	0	0
사우디아라비아	41	1	1	0	0
싱가포르	42	1	1	0	0
아제르바이잔	43	1	0	0	1
이라크	44	1	0	0	1
페루	45	1	0	0	1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 한밭대학교

- 한밭대학교에는 총 16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106명, 석사 47명, 박사과정이 13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106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70명이 인문사회계열 이고, 공학 계열은 31명, 예체능 5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4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5명이 공학 계열, 6명 이 인문사회계열, 4명이 자연과학계열, 2명이 예체능 계열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13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공학 계열이 11명, 인 문사회계열이 2명이다.

[표 3-14] 2018년 한밭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166	106	47	13
중국	1	87	71	14	2
베트남	2	29	25	3	1
가나	3	27	0	19	8
몽골	4	11	6	5	0
스리랑카	5	3	3	0	0
나이지리아	6	1	0	1	0
라이베리아	7	1	0	1	0
미국	8	1	0	1	0
우간다	9	1	0	1	0
우즈베키스탄	10	1	1	0	0
일본	11	1	0	1	0
짐바브웨	12	1	0	0	1
파키스탄	13	1	0	0	1
필리핀	14	1	0	1	0

□ 대전대학교

- 대전대학교에는 총 12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87명, 석사 17명, 박사과정이 25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8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57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15명이 자연과학계열, 공학 계열은 5명, 예체능 계열은 7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1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8명이 인문사회계열, 6명이 자연과학계열, 2명이 공학 계열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25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8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자연과학계열이 4명, 공학 계열이 2명이다.
- 대전대학교에는 의학 계열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총 5명이 있다. 학부과정이 3명, 석사와 박사과정이 각 1명이다.

[표 3-15] 2018년 대전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129	87	17	25
중국	1	106	74	9	23
베트남	2	7	7	0	0
대만	3	3	2	0	1
우즈베키스탄	4	2	1	1	0
탄자니아	5	2	0	2	0
나이지리아	6	1	0	1	0
라오스	7	1	0	1	0
미국	8	1	1	0	0
미얀마	9	1	0	1	0
불가리아	10	1	0	1	0
브라질	11	1	1	0	0
인도네시아	12	1	1	0	0
카자흐스탄	13	1	0	1	0
파키스탄	14	1	0	0	1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 목원대학교

- 목원대학교에는 총 20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71명, 석사 51명, 박사과정이 86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71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5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6명이 자연과학계열, 공학 계열은 1명, 예체능 계열은 29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51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2명이 인문사회계열, 3명이 자연과학계열, 16명이 예체능 계열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86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63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예체능 계열은 23명이다.
- 목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은 예체능 계열의 유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목원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의 32.9%가 예체능 계열로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에 예체능 계열이 두루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2018년 목원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중국	1	187	59	44	84
베트남	2	12	8	4	0
탄자니아	3	3	1	2	0
네팔	4	1	0	0	1
몽골	5	1	1	0	0
미국	6	1	0	0	1
캄보디아	7	1	1	0	0
키르기스스탄	8	1	1	0	0
태국	9	1	0	1	0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 배재대학교

- 배재대학교에는 총 29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170명, 석사 87명, 박사과정이 41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170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46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11명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은 11명, 예체능계열은 2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8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79명이 인문사회계열, 1명이 자연과학계열, 6명이 공학 계열, 1명이 예체능 계열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41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4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1명은 자연과학계열, 6명이 공학 계열이다.

[표 3-17] 2018년 배재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중국	1	238	135	69	34
일본	2	22	22	0	0
베트남	3	8	2	5	1
몽골	4	3	3	0	0
캐나다	5	3	0	3	0
키르기스스탄	6	3	2	1	0
가나	7	2	1	0	1
멕시코	8	2	0	0	2
타지키스탄	9	2	1	1	0
태국	10	2	2	0	0
터키	11	2	0	2	0
파키스탄	12	2	1	0	1
라오스	13	1	1	0	0
르완다	14	1	0	1	0
모리타니	15	1	0	0	1
미국	16	1	0	1	0
영국	17	1	0	1	0
우간다	18	1	0	1	0
우즈베키스탄	19	1	0	1	0
인도	20	1	0	0	1
콩고민주공화국	21	1	0	1	0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 우송대학교

- 우송대학교에는 총 1,522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1,137명, 석사 356명, 박사과정이 29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1,13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886명이 인문사회 계열이고, 3명이 자연과학계열, 공학 계열은 56명, 예체능 계열은 192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356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283명이 인문사회계열, 3명이 자연과학계열, 70명이 공학 계열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29명의 외국인 유학생 전원이 인문사회계열이다.
- 우송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의 대부분이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2018년 우송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중국	1	790	540	223	27
우즈베키스탄	2	344	307	36	1
방글라데시	3	74	61	13	0
카자흐스탄	4	67	61	6	0
네팔	5	51	38	13	0
베트남	6	46	29	16	1
러시아	7	41	29	12	0
파키스탄	8	16	15	1	0
인도	9	12	8	4	0
인도네시아	10	9	8	1	0
미국	11	7	1	6	0
몽골	12	6	2	4	0
태국	13	6	4	2	0
모로코	14	4	4	0	0
키르기스스탄	15	4	3	1	0
남아프리카공화국	16	3	2	1	0
말레이시아	17	3	3	0	0
브라질	18	3	3	0	0
에티오피아	19	3	3	0	0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영국	20	3	0	3	0
우간다	21	3	1	2	0
캐나다	22	3	2	1	0
미얀마	23	2	1	1	0
벨라루스	24	2	1	1	0
케냐	25	2	1	1	0
필리핀	26	2	1	1	0
그리스	27	1	1	0	0
나이지리아	28	1	0	1	0
남수단공화국	29	1	1	0	0
네덜란드	30	1	1	0	0
대만	31	1	0	1	0
룩셈부르크	32	1	0	1	0
르완다	33	1	1	0	0
스페인	34	1	0	1	0
아일랜드	35	1	0	1	0
아제르바이잔	36	1	1	0	0
에리트리아	37	1	1	0	0
일본	38	1	1	0	0
칠레	39	1	1	0	0
타지키스탄	40	1	0	1	0
프랑스	41	1	0	1	0
핀란드	42	1	1	0	0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 한남대학교

- 한남대학교에는 총 33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259명, 석사 52명, 박사과정이 27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259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99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5명이 자연과학계열, 공학 계열은 46명, 예체능 계열은 9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52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46명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과 공학 계열에 각 1명, 예체능 계열은 4명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2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21명이 인문사회계열이고, 2명이 자연과학, 3명이 공학, 1명이 예체능 계열이다.
- 한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의

대부분이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되어 있다.

[표 3-19] 2018년 한남대학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중국	1	192	152	24	16
베트남	2	82	73	8	1
몽골	3	18	6	9	3
방글라데시	4	13	7	3	3
일본	5	6	5	1	0
미국	6	4	2	2	0
파키스탄	7	4	3	1	0
필리핀	8	4	2	1	1
우즈베키스탄	9	3	3	0	0
네팔	10	2	1	1	0
러시아	11	2	1	1	0
가나	12	1	0	0	1
르완다	13	1	0	1	0
스리랑카	14	1	1	0	0
이란	15	1	1	0	0
이집트	16	1	0	0	1
인도	17	1	1	0	0
캐나다	18	1	0	0	1
케냐	19	1	1	0	0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 카이스트에는 총 64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 가운데 학사 230명, 석사 217명, 박사과정이 196명이다.
- 학사과정에 있는 230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공학 계열이 185명으로 가장 많고, 자연과학계열이 41명, 인문사회계열은 4명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217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공학 계열이 165명이고, 인문사회계열이 50명, 자연과학계열이 2명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196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공학 계열이 163명,

자연과학계열이 33명이다.

-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특징은 학사와 석사, 박사 전 학위과정에서 공학 계열 집중도가 약 80% 정도로 특이점은 석사과정의 약 25%가 인문사회계열이라는 점이다.

[표 3-20] 2018년 한국과학기술원 유학생 국가별 순위

(단위: 명)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베트남	1	63	26	20	17
파키스탄	2	54	5	22	27
중국	3	51	11	22	18
인도네시아	4	50	19	22	9
카자흐스탄	5	45	36	7	2
에티오피아	6	37	22	5	10
인도	7	28	5	4	19
미국	8	24	0	8	16
태국	9	24	15	6	3
캐나다	10	15	4	7	4
아랍에미리트	11	14	13	0	1
러시아	12	13	8	3	2
이란	13	12	2	2	8
방글라데시	14	11	2	5	4
몽골	15	10	6	3	1
우즈베키스탄	16	10	2	8	0
터키	17	9	3	2	4
아제르바이잔	18	8	7	0	1
요르단	19	8	1	2	5
네팔	20	7	1	3	3
말레이시아	21	7	4	1	2
사우디아라비아	22	7	5	1	1
필리핀	23	7	4	2	1
가나	24	6	0	3	3
에콰도르	25	6	0	5	1
이집트	26	6	4	0	2
우간다	27	5	0	4	1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우크라이나	28	5	2	3	0
케냐	29	5	3	2	0
타지키스탄	30	5	5	0	0
프랑스	31	5	0	0	5
도미니카 공화국	32	4	0	3	1
르완다	33	4	2	2	0
브라질	34	4	1	1	2
알제리	35	4	0	1	3
캄보디아	36	4	0	4	0
투르크메니스탄	37	4	2	1	1
나이지리아	38	3	0	3	0
미얀마	39	3	0	3	0
영국	40	3	1	0	2
키르기스스탄	41	3	2	1	0
탄자니아	42	3	0	1	2
독일	43	2	0	0	2
리비아	44	2	0	2	0
멕시코	45	2	0	1	1
보츠와나	46	2	0	0	2
시리아	47	2	1	0	1
싱가포르	48	2	0	1	1
엘살바도르	49	2	0	2	0
이라크	50	2	0	1	1
코스타리카	51	2	0	1	1
콜롬비아	52	2	1	1	0
홍콩	53	2	0	2	0
감비아	54	1	0	1	0
그루지아	55	1	1	0	0
남수단공화국	56	1	0	1	0
네덜란드	57	1	1	0	0
뉴질랜드	58	1	0	0	1
니카라과	59	1	0	1	0
대만	60	1	0	1	0
동티모르	61	1	0	1	0
말라위	62	1	0	1	0
모로코	63	1	0	1	0

국가명	순위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바레인	64	1	0	1	0
벨기에	65	1	0	1	0
볼리비아	66	1	1	0	0
스위스	67	1	0	0	1
아이슬란드	68	1	0	1	0
에리트리아	69	1	0	0	1
오만	70	1	0	0	1
오스트레일리아	71	1	1	0	0
오스트리아	72	1	0	0	1
체코	73	1	0	1	0
칠레	74	1	0	1	0
콩고	75	1	0	1	0
튀니지	76	1	0	0	1
파나마	77	1	1	0	0
피지	78	1	0	1	0

주: 유학생 국가별 순위 5위 이상 음영 처리함.

6) 대전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 2018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자비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 대전지역 대학별 자비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충남대학교 유학생은 95.5%인 1,392명, 한밭대학교 유학생은 74.8%인 154명, 대전대학교 유학생은 74.5%인 210명, 목원대학교 유학생은 88.4%인 251명, 배재대학교 유학생은 88.3%인 484명, 우송대학교 유학생은 100%인 2,065명(우리정부초빙 1명 제외), 한남대학교 유학생은 91.3%인 526명, 한국과학기술원 유학생은 10.5%인 89명이다.
- 한국과학기술원이 타 대학보다 비교적 다양하게 유학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유학생은 대학초청이 53.4%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우리정부초빙 14.1%, 자비유학생 10.5%, 자국정부파견 3.1% 순이다.

[표 3-21]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 유학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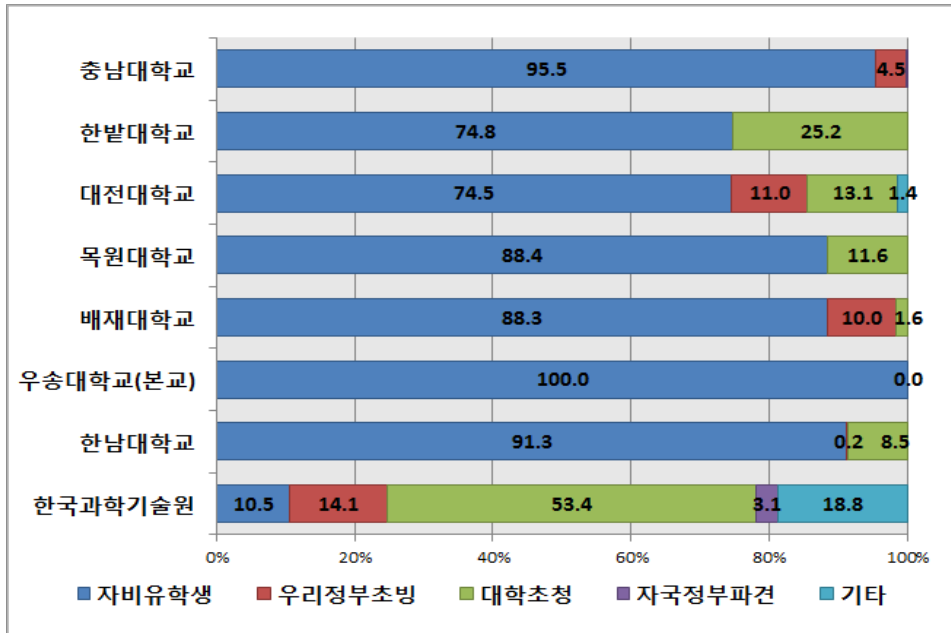
(단위: 명, %)

	계	자비유학생	우리정부 초빙	대학초청	자국정부 파견	기타
충남대학교	1,458	1,392	65	0	1	0
	100.0	95.5	4.5	0.0	0.1	0.0
한밭대학교	206	154	0	52	0	0
	100.0	74.8	0.0	25.2	0.0	0.0
대전대학교	282	210	31	37	0	4
	100.0	74.5	11.0	13.1	0.0	1.4
목원대학교	284	251	0	33	0	0
	100.0	88.4	0.0	11.6	0.0	0.0
배재대학교	548	484	55	9	0	0
	100.0	88.3	10.0	1.6	0.0	0.0
우송대학교 (본교)	2,066	2,065	1	0	0	0
	100.0	100.0	0.0	0.0	0.0	0.0
한남대학교	576	526	1	49	0	0
	100.0	91.3	0.2	8.5	0.0	0.0
한국과학기술 술원	844	89	119	451	26	159
	100.0	10.5	14.1	53.4	3.1	18.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7) 대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여부

- 2018년 대전지역 기숙사 수용하는 인원은 2,632명 38.3%이고, 미수용하는 인원은 4,245명 61.7%로 수용하는 비율이 미수용 비율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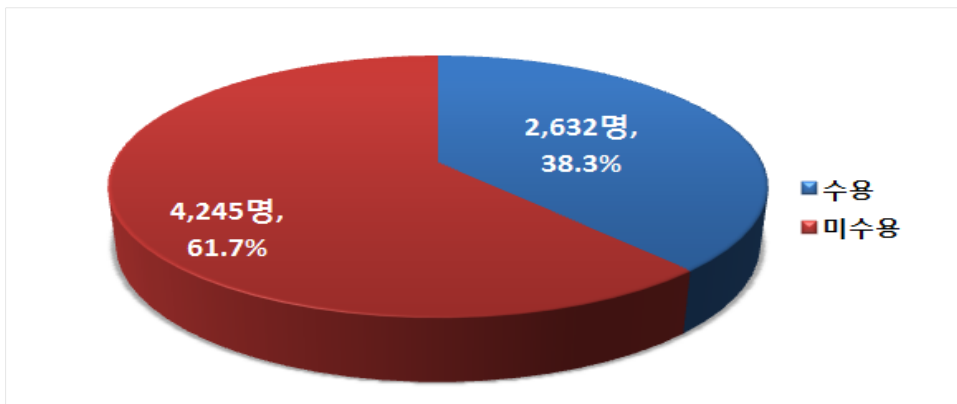
[그림 3-14]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 유학형태

[표 3-22] 2018년 대학교 기숙사 수용 여부

(단위: 명, %)

	계		수용		미수용	
전체	6,877	(100.0)	2,632	(38.3)	4,245	(61.7)
충남대학교	1,458	(100.0)	258	(17.7)	1,200	(82.3)
한밭대학교	206	(100.0)	52	(25.2)	154	(74.8)
건양대학교	68	(100.0)	7	(10.3)	61	(89.7)
대전대학교	282	(100.0)	132	(46.8)	150	(53.2)
대전신학대학교	1	(100.0)	1	(100.0)	0	(0.0)
목원대학교	284	(100.0)	115	(40.5)	169	(59.5)
배재대학교	548	(100.0)	181	(33.0)	367	(67.0)
우송대학교(본교)	2,066	(100.0)	866	(41.9)	1,200	(58.1)
을지대학교	9	(100.0)	6	(66.7)	3	(33.3)
침례신학대학교	22	(100.0)	11	(50.0)	11	(50.0)
한남대학교	576	(100.0)	308	(53.5)	268	(46.5)

	계		수용		미수용	
한국과학기술원	844	(100.0)	606	(71.8)	238	(28.2)
대전보건대학교	13	(100.0)	4	(30.8)	9	(69.2)
우송정보대학	78	(100.0)	76	(97.4)	2	(2.6)
건양사이버대학교*	14	(100.0)	0	(0.0)	14	(100.0)
건신대학원대학교	12	(100.0)	6	(50.0)	6	(50.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93	(100.0)	0	(0.0)	393	(100.0)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3	(100.0)	3	(100.0)	0	(0.0)



[그림 3-15] 2018년 대학교 기숙사 수용 여부

8) 대전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률은 37.5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학위과정에 있는 535명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224명이 토픽 4급 이상이다.
- 언어 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50%를 넘긴 곳은 대전대학교와 배재대학교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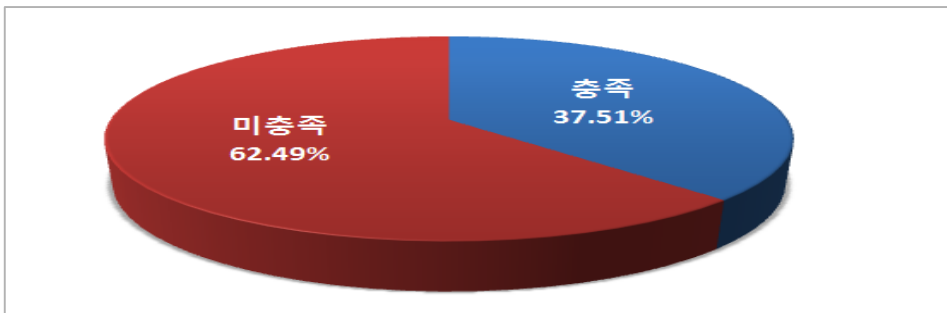
- 전 학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카이스트의 경우, 입학 시에 영어점수와 한국어 점수가 필요한데, 아래 표에는 나와 있지 않다.

[표 3-23]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대학교)

(단위: 명, %)

	학위과정 (대학) (A)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 (E/A)x100
		계(E)	TOPIK4급 (예체능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530 수준 이상 학생 수	
전체	2,703	1,014	576	438	37.51
충남대학교	535	240	224	16	44.86
한밭대학교	106	28	28	0	26.42
건양대학교	53	10	10	0	18.87
대전대학교	87	48	48	0	55.17
대전신학대학교	1	0	0	0	0.0
목원대학교	71	31	31	0	43.66
배재대학교	170	103	103	0	60.59
우송대학교(본교)	1,137	484	64	420	42.57
을지대학교	6	6	6	0	100.0
침례신학대학교	9	9	9	0	100.0
한남대학교	259	35	33	2	13.51
한국과학기술원	230	10	10	0	4.35
대전보건대학교	6	6	6	0	100.0
우송정보대학	16	4	4	0	25.0
건양사이버대학교	14	0	0	0	0.0
건신대학원대학교	0	0	0	0	0.0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0	0	0	0	0.0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3	0	0	0	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그림 3-16] 대전지역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여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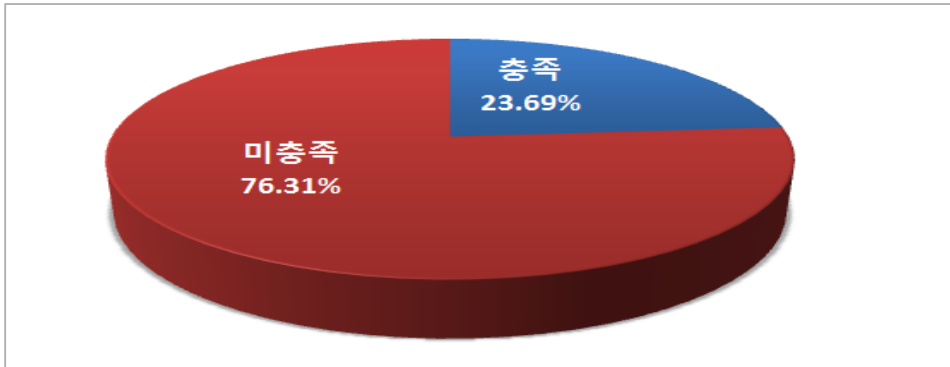
- 2018년 대전지역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률은 23.69%로 대학교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률 37.51%보다 13.82%p 낮다.

[표 3-24]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대학원)

(단위: 명, %)

	학위과정(대학원)(A)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 (E/A)x100
		계(E)	TOPIK4급 (예체능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530 수준 이상 학생 수	
계	2,043	484	447	37	23.69
충남대학교	363	166	166	0	45.73
한밭대학교	60	17	17	0	28.33
건양대학교	15	11	11	0	73.33
대전대학교	42	16	16	0	38.10
대전신학대학교	0	0	0	0	0.0
목원대학교	137	32	32	0	23.36
배재대학교	128	66	60	6	51.56
우송대학교(본교)	385	96	78	18	24.94
을지대학교	3	0	0	0	0.00
침례신학대학교	13	7	7	0	53.85
한남대학교	79	45	34	11	56.96
한국과학기술원	413	24	24	0	5.81
대전보건대학교	0	0	0	0	0.0
우송정보대학	0	0	0	0	0.0
건양사이버대학교	0	0	0	0	0.0
진신대학원대학교	12	4	2	2	33.33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393	0	0	0	0.0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0	0	0	0	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그림 3-17] 대전지역 2018년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여부(대학원)

9)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연도별 유학생 수

- 2008년부터 2017년 10년간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연도별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서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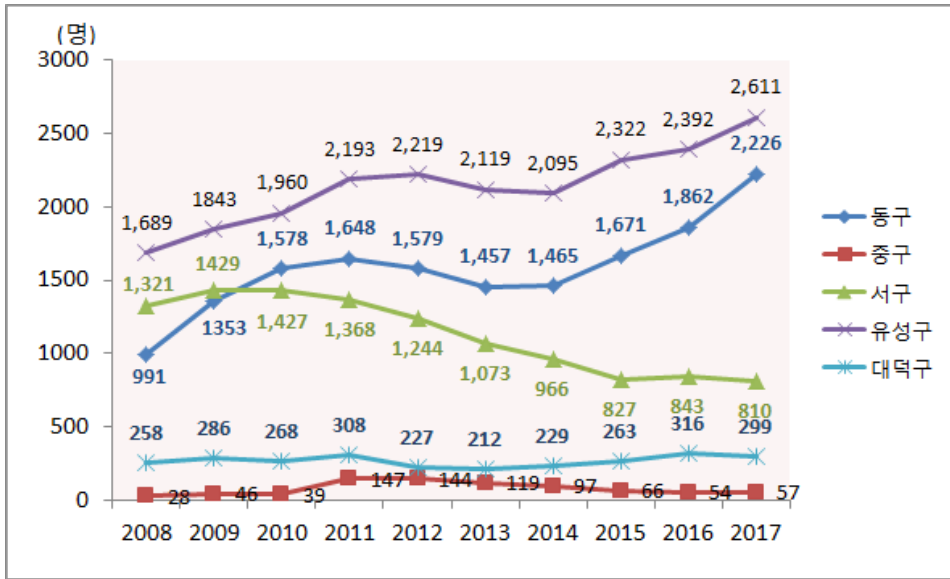
[표 3-25]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연도별 유학생 수

(단위: 명)

대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08	4,287	991	28	1,321	1,689	258
2009	4,957	1,353	46	1,429	1,843	286
2010	5,272	1,578	39	1,427	1,960	268
2011	5,664	1,648	147	1,368	2,193	308
2012	5,413	1,579	144	1,244	2,219	227
2013	4,980	1,457	119	1,073	2,119	212
2014	4,852	1,465	97	966	2,095	229
2015	5,149	1,671	66	827	2,322	263
2016	5,467	1,862	54	843	2,392	316
2017	6,003	2,226	57	810	2,611	299

출처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 1) 행정안전부 통계는 2017.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4월 기준 통계와 다소 상이함.



[그림 3-18] 대전지역 기초자치구별 연도별 대전지역 유학생 수

10) 대전지역 유학생 연령

- 대전지역 유학생 연령은 20대가 4,713명(78.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 831명(13.8%), 30대 427명(7.1%), 40대 28명(0.5%) 순이다.
- 성별로 보면, 10대와 20대에서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남정보다 규모가 크고 30대와 40대에서는 남성의 규모가 크다.
- 유학생에 대한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분석은 추후 대전지역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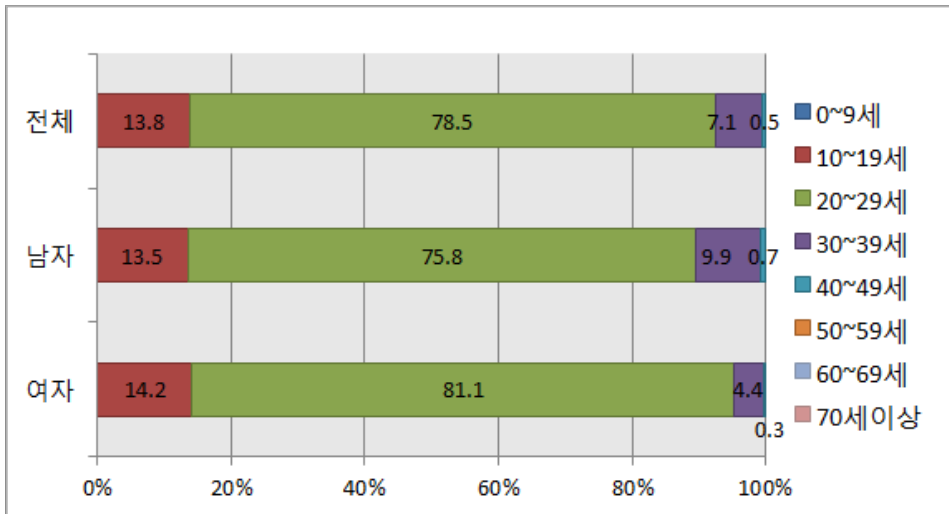
[표 3-26]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연령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구 분	6,003	100.0	2,955	100.0	3,048	100.0
0~9세	*	-	*	-	*	-
10~19세	831	13.8	399	13.5	432	14.2
20~29세	4,713	78.5	2,241	75.8	2,472	81.1
30~39세	427	7.1	292	9.9	135	4.4
40~49세	28	0.5	20	0.7	8	0.3
50~59세	*	-	*	-	*	-
60~69세	*	-	*	-	*	-
70세이상	*	-	*	-	*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 1)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그림 3-19]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연령

11) 대전지역 유학생 체류 기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2,317명(38.6%)으로 가장 많고, 1년~2년 미만이 1,433명(23.9%), 2년~3년 미만 900명(15.0%), 3년~4년 미만 665명(11.1%), 5년~10년 미만 349명(5.8%), 4년~5년 미만 303명(5.0%), 10년 이상 32명(0.5%) 순으로 나타난다.
- 성별로 보면, 3년 미만의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대전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가 많다.

[표 3-27]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체류기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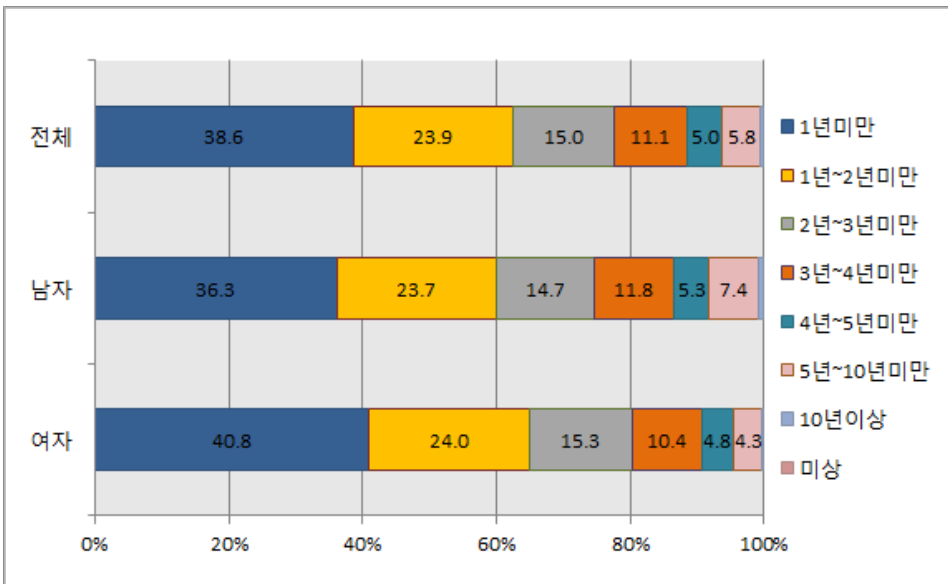
	전체		남자		여자	
구 분	6,003	100.0	2,955	100.0	3,048	100.0
1년 미만	2,317	38.6	1,072	36.3	1,245	40.8
1년~2년 미만	1,433	23.9	700	23.7	733	24.0
2년~3년 미만	900	15.0	434	14.7	466	15.3
3년~4년 미만	665	11.1	348	11.8	317	10.4
4년~5년 미만	303	5.0	157	5.3	146	4.8
5년~10년 미만	349	5.8	219	7.4	130	4.3
10년 이상	32	0.5	23	0.8	9	0.3
미상	*	-	*	-	*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 1)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12) 대전지역 유학생 국적

- 대전지역 유학생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3,141명(5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714명(11.9%), 우즈베키스탄 302명(5.0%), 아프리카 240명(4.0%), 몽골 138명(2.3%), 카자흐스탄 130명(2.2%) 순이다.
- 대륙별로 보면,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아시아 출신이 주를 이루며, 특히 중국 출신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50%를 넘는다.
- 성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 러시아, 중남미국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유학생이 더 많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여성보다 남성 유학생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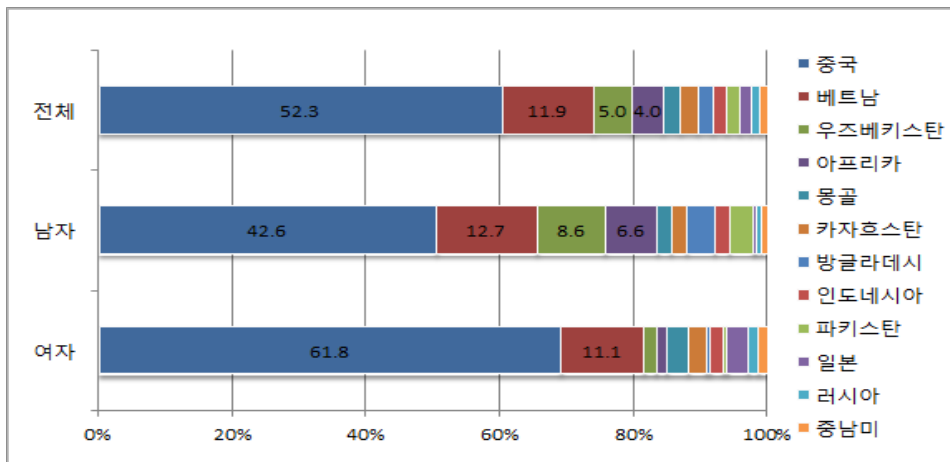
[그림 3-20]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체류 기간

[표 3-28]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국적(전체 1% 이상)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중국	3,141	52.3	1,258	42.6	1,883	61.8
베트남	714	11.9	376	12.7	338	11.1
우즈베키스탄	302	5.0	253	8.6	49	1.6
아프리카	240	4.0	196	6.6	44	1.4
몽골	138	2.3	50	1.7	88	2.9
카자흐스탄	130	2.2	58	2	72	2.4
방글라데시	119	2.0	103	3.5	16	0.5
인도네시아	111	1.8	55	1.9	56	1.8
파키스탄	102	1.7	88	3	14	0.5
일본	93	1.5	8	0.3	85	2.8
러시아	64	1.1	20	0.7	44	1.4
중남미	61	1.0	25	0.8	36	1.2

출처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3-21] 2017년 대전지역 유학생 국적(전체 1% 이상)

3.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특징

☐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

- 2018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6,87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로, 서울의 외국인 유학생은 61,163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고, 경기도, 부산, 경북, 충남, 대전 순이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추세

- 2003년 이래로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증가세에 있다. 2003년 314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6,877명으로 늘어, 약 21.9배 증가했다.

☐ 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 2,922명으로 제일 많고, 동구 2,442명, 서구 914명, 대덕구 577명, 중구 22명 순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2017년 외국인 유학생은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 2,611명, 동구에 2,226명, 서구 810명, 대덕구 299명, 중구 57명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외국인 유학생 연령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연령은 20대가 78.5%인 4,713명, 10대가 13.8%인 831명, 30대가 7.1%인 427명, 40대가 0.5%인 28명이다.
- 연령별 성별 비율을 보면, 10대와 20대에서 여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고, 30대와 40대에는 남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 외국인 유학생 성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이 3,532명으로 남성 3,345명보다 더 많다.
-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은 2003년 초기에는 남성이 많다가 2009년 이후로는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수가 많다.

☐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38.6%로 제일 많고, 다음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23.9%이다.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류자의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4년 이상 5년 미만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수보다 적다.
- 체류 기간을 성별로 보면, 3년 미만 체류에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남성보다 많고, 4년 이상에서는 남성 외국인 유학생이 여성보다 많다.

☐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52.3%는 중국 출신이다.
- 다음으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순으로 나타난다.
- 국적과 성별로 외국인 유학생을 보면,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 러시아, 중남미 출신에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외국인 유학생은 남성이 많다.

☐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2005년 이래로,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박사 전 학위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 학위별로는 학부과정이 가장 많고, 석사, 박사 순이다.

- 어학연수생도 2005년 102명에서 2018년 1,02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 대전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충남대학교에 1,458명, 우송대학교에 2,06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충남대학교에는 어학연수 유학생이 약 30%를 차지하고, 우송대학교에는 학부생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 카이스트 외국인 유학생의 50% 이상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393명 전원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 대전지역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 학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67% 이상이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이고, 공학 계열이 16%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57%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이고, 31% 이상이 공학 계열에 재학 중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47.6%가 공학 계열이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23%대로 유사하다.

☐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 특이성

- 대전지역에 있는 대부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되어 있다.
-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는 의학 계열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 한밭대학교와 우송대학교에는 공학 계열에 적지 않은 비율로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 우송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의 학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고,

목원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에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다.

- 카이스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80%가량이 공학 계열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있고, 석사과정에 인문사회계열을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다.

☐ 대전지역 유학형태

- 대전지역 대학교의 유학형태는 카이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비 유학이다.
- 우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거의 100%가 자비 유학이고, 충남대학교는 95.5%, 한남대학교가 91.3%, 목원대학교가 88.4% 등으로 확인된다. 자비 유학비율이 제일 낮은 대학은 대전대학교로 74.5%이다.
- 카이스트는 오직 10.5%만이 자비 유학이고, 대학초청 유학생이 53.4%, 정보초청이 14.1% 등이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 여부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38.3%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능력 충족 학생 비율은 37.51% 을 보인다.
- 2018년 대전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능력 충족 학생 비율은 23.69%이다.

유학생 관련 정책

1. 유학생 관련 조례
2. 유학생 관련 정책
3.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4장

4장 유학생 관련 정책

1. 유학생 관련 조례

-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유학생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외국인유학생 관련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다
- 대전시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특정 조례는 없고, 다만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 ‘외국인’과 관련한 대전광역시 조례는 총 7개, 규칙은 1개이다.

1) 대전광역시

- 2019년 10월 현재, 대전지역에 대학생과 관련한 법규는 총 6개가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제정한 훈령 [대전광역시 서구 대학생 행복 나눔 봉사단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외한 5개는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규칙이다.

☐ 대학생의 대상에 유학생 명시

-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시행규칙]은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대전광역시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그리고 의회 사무처 등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조례다. 조례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전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개인이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특이점은 대전 지역 유학생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시행규칙] 제4조 3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전지역 대학생에서 외국인 유학생 존재를 명시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표 4-1] 대전시의 대학생 관련 조례와 규칙

번호	종류	법규명	소관부서
1	조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2	규칙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시행규칙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3	조례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차지원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4	조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5	조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6	훈령	대전광역시 서구 대학생행복나눔봉사단 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규정	복지산업국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다.
- 제2조 1항에서 ‘거주외국인’은 “대전광역시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따라서 본 조례의 외국인은 ‘거주할 목적’이 아닌 유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본 조례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응급구호,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즉 외국인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다.
- 본 조례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조례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참여회의의 위원은 ‘국내 거주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유학생의 실질적 참여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4-2] 대전시 외국인 관련 조례와 규칙

번호	종류	법규명	소관부서
1	조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2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3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과
4	규칙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과
5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중구, 총무과
6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7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서구, 기획홍보실
8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유성구, 기획실

□ **대전광역시 중구/대덕구/유성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 조례는 중구/대덕구/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 제2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주민’은 “중구/대덕구/유성구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 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법령상으로도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 조례는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서 ‘거주 외국인’은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거주할 목적’의 범주에 따라 유학생이 포함 여부가 달려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2019년 9월 30일 제정된 본 조례는 총 8조로 이뤄져 있다.
- 조례의 대상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는데, ‘세종시에 거주하며,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본 조례의 특성은 세종시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개인이 아니라,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지만,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주거 등 생활 편의 안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

[표 4-3]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어학 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2.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주거 등 생활 편의 안내
4.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으로 넓은 의미로 외국인 유학생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된다.

3)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에는 [평택시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장학금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다. 이 조례와 시행규칙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학생 가운데 일본 아오모리 공립대학에 유학을 가는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본 조례의 대상에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외국인 주민’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다양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한편 25개 각 자치구의 조례는 ‘외국인 주민’ 혹은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구마다 이들을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으로는 ‘관내 90일 거주’을 기본으로 하고, ‘거주’ 혹은 ‘생계활동’, ‘합법적 체류’, ‘거주할 목적’ 등을 ‘외국인 주민’ 혹은 ‘거주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학생은 각 자치구 조례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 서울특별시 각 구의 ‘외국인’ 관련 조례의 대상

- 성동구 조례의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외국인 유학생도 조례의 대상이다.
- 용산구 조례의 ‘외국인 주민’은 “용산구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조례 대상에 포함된다.
- 종로구 조례의 ‘거주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된다.
- 중구 조례의 ‘거주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구 관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거주할 목적’의 정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 강북구의 ‘거주 외국인’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유학생은 포함된다.
- 이외에도, 동대문구(관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성북구(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랑구(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원구(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마포구(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서대문구(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은평구(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구로구(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금천구(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양천구(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영등포구(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강남구(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강동구(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관악구(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동작구(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서초구(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송파구(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도 외국인 관련 조례를 갖고 있다. 서울시의 대부분 조례에서 유학생은 모호한 대상으로, 조례의 대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5)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따라서 본 조례에 유학생은 포함된다.

2. 대전 유학생 관련 정책

- 대전광역시 2019년 대학 및 청년 정책은 ‘지역상생발전 기반구축’, ‘취창업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 자립기반 강화’, 그리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문화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대학협력으로 지역상생발전 기반 구축 정책에서 유학생과 관련한 사업 가운데 대학지원은 ‘글로벌 인재육성 및 관·산·학 연계 클러스트 구축’이 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과 연합교양대학 운영이 있다.
- 최근 대전시는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청년사업 가운데 ‘지역상생발전 기반구축’ 이외의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빠져 있다.

1)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 국제교류센터는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에서 대전지역 유학생과 관련해 벌이는 사업은 세 분야다. 첫째, 시민참여활성화사업에는 ‘국제 자선 바자회’와 ‘DIC 글로벌 서포터즈’가 있고, 둘째, 국제화기반조성사업에는 ‘DIC한국어교실’과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가 있다. 셋째, 국제화네트워크 사업에는 ‘외국인네트워크 구축’과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이 있다.
- 국제교류센터의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매 및 우호 도시 협력을 통한 행정적 교류의 강화, 둘째는 대전지역에 있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셋째는 지역민의 국제 교류 및 역량 강화다.

☐ DIC 글로벌 서포터즈

- 대전지역 대학생의 국제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DIC글로벌 서포터즈’ 사업은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증진과 내국인과의 교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 **DIC 한국어 교실**

-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한국어교실을 개방하고 있다.
주중과 주말 반을 운영하여, 참여 외국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 매년 5월 지역 외국인 유학생이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줄넘기와 줄다리기 등 대학별 대항전 및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한다.

2) 대전광역시 외국인 생활안내서비스

- 리빙인대전(<http://www.livingindaejeon.or.kr>)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생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전의 문화시설, 축제, 투어,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다.

☐ **내가 살고 있는 대전**

- 리빙인대전(<http://www.livingindaejeon.or.kr>)사이트에서는 새롭게 대전에 이주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류 및 국적취득 외에도 집구하기와 이사와 같은 주거, 교통, 의료, 임신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체류 및 국적취득**

-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 등록 : 외국인 등록 대상·시기·방법
- 외국인의 신고의무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취득 : 출생, 인지, 재취득, 부칙 제2조 재취득

□ 생활안내

- 주거 생활 : 집구하기, 전기·가스·수도, 통신서비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 교통 : 교통카드,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시외버스·고속버스, 철도, 공항, 운전면허
- 경제생활 : 은행거래, 쇼핑하기, 세금납부
- 의료·건강 : 병원 이용,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국민건강보험
- 교육 : 한국의 교육제도, 대전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외국인학교, 한국어교육, 공공도서관
- 취업 : 취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 임신·육아 : 임신과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영유아보육 및 육아교육
- 가족관계등록 신고 : 국제결혼, 국제이혼, 출생신고, 사망신고
- 공공기관 이용 :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 주요기관 안내 : 외국인 생활안내 및 지원센터, 외국인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유용한 전화번호
- 종교 : 대전지역 종교단체

3.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1) 일본

□ 유학생 수용 10만인 계획³⁹⁾

-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먼저 유학생 정책을 시작한 일본은 1983년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교육 및 대외정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 위 계획은 대학 및 교육기관이 유학생에 대한 교육지도체제를 확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일본입국시험을 치르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육, 기숙사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계획이 시작된 이후, 유학생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83년 10,428명이었던 유학생은 2007년 118,498명으로 11.4배 증가했고, 관련 예산은 80억 엔에서 407억 엔으로 5.1배 증가했다. 계획이 비자제도를 간소화하면서, 언어연수생도 유학생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일본에 49개였던 일본어학교가 1987년에는 309개로 증가했고, 학생 수도 급증했다. 한편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1991년 연수라는 이름으로 단순 노동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기능실습제도’를 추가하여 연수 후 2년 안에 고용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 그러나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는 환경이 따라가지 못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었다. 국비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일본어집중코스와 사비유학생에게 제공되지 않는 점, 비자취득 및 유학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신원보증인, 수업료 지불 관련 채무보증인, 아파트 입주 시 연대보증인 등 일본 입국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39) 강동관, 설동훈, 임경택(2012).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 IOM이민정책연구원.

-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학생에게 인정되던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1990년에 1일 4시간으로 확대했다.
- 1990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2~3배로 확대하여, 일본 체류기간 동안 체류 지위의 안정을 지원했다. 2000년에는 외국인 등록 시에 요구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 2001년부터는 유학생에 대한 입국·체류심사 서류를 없애고, 교육기관에 위임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 단기유학추진제도와 지적 국제공헌을 위한 유학생 정책⁴⁰⁾

- 1993년 문부성은 ‘단기유학추진제도’를 만들었다. 제도는 대학·대학원에 재적한 채로 1년간 이내의 단기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일본으로 유학하는 자 또는 일본으로부터 아시아 근린제국 등에 유학하는 자를 지원한다.
- 1999년 3월, 「지적 국제공헌의 발전과 새로운 유학생 정책의 전개를 지향하며-포스트 2000년 유학생 정책」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는 유학생 수용을 ‘지적 국제공헌’이라고 강조하며 유학생 수용 확대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유학생 수용은 외국인에게 교육·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지적 국제공헌’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주장했다.

□ 유학생 30만인 계획⁴¹⁾

- 2008년 발표된 유학생 30만 계획은 일본유학에 대한 동기부여부터 입학과정부터 졸업 및 취업까지 유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0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은,

40) 강동관, 설동훈, 임경택(2012).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 IOM이민정책연구원.

41) 문부성(2008).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 연구. 김우중. 2011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10. No.17에서 재인용.

우수인재 유치를 국가, 지역, 분야별로 연계하고 있다.

- 일본 유학 권유 : 박람회 개최 확대, 유학 상담 강화, 해외 일본어 교육 확대
- 입학·입국 개선 : 대학 홍보 강화, 입국 전 입학 허가 추진, 입국 전 각종 수속 완료, 입국심사 간소화
-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 국제화 거점대학 육성, 영어 학위 코스 확대, 복수 학위·단기 유학 추진, 대학의 전문적성 강화
- 수용 환경 조성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유학생에게 숙소 제공, 국비 유학생제도 개선, 지역·기업과의 교류 지원, 일본어 교육 충실
- 졸업·수료 후의 사회 수용 추진 : 산·관학 제휴 취직 지원, 체류자격의 명확화 및 체류기간 연장, 귀국 후 팔로우 업(follow-up)

□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 유학생 유치와 함께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제화거점정비사업(Global 30)’ 계획을 추진했다. 거점에 선정된 대학은 5년 동안 건당으로 매년 2~4억 엔의 재정 지원을 받고, 대학은 약 3,000~8,000명의 유학생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국제화거점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 배치, 영어 교재 개발, 유학생 수용을 위한 지원 배치, 해외 거점 정비 충실화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① 영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 구축 ② 유학생 수용에 관한 체제 정비 ③ 원스톱서비스 거점 설치 및 교환 유학 확대 등 전략적인 국제 연계 추진이 있다

□ 유학생 수용 환경 형성

- 유학생 수용 환경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유학생 기숙사 확보, 장학금 제도, 졸업 후의 사회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정적 거주를 위해 단기 유학생을 포함한 유학생들에게 입국 후 1년 이내 기숙사 제공을 위해, 대학 기숙사 정비, 민간 기숙사 확보, 민간아파트 임차 지원,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안심 임대 지원 사업, 집세 채무보증제도 활용, 공용 주택 활용, 도시재생기구의 UR 임대주택 활용, 교육 관계 공동이용 거점 제도 등이 있다.

- 이외에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제도 및 졸업 후 사회 수용⁴²⁾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유학생의 인턴십과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졸업 후 구직기간을 1년으로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시 서류 간소화 정책을 폈고, 귀국 유학생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귀국유학생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 특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을 위해 유학생을 지역대학으로 입학시키는 정책도 있다. 유학생과의 일대일 교류 및 지원 활동, 생활 상담, 일본어 지원, 호스트 패밀리, 교류 이벤트 등을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는 방안을 펴고 있다.

☐ 일본 유학생 정책의 문제

-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지원방안 발굴에도 일본사회에서 유학생의 문제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학교 내 수업과 행정 체계, 장학금, 일본 적응과 취업 등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이슈들이 등장하고 지속되고 있다.

2) 중국

☐ 중국 유학 계획 프로젝트⁴³⁾

- 1990년대부터 유학생 유치를 통해 중국은 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기 시작했고, 2000년 초부터 장학금 제공 및 입학 관리를 정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완화 정책을 도입했고, 2010년에는 외국과의

42) 문부과학성. 유학생 30만인 계획의 진척 상황(2010.7).

43)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311-337.

교육 교류·협작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유학계획(Study Abroad in China)’ 프로젝트를 개정했다.

- ‘중국유학계획(Study Abroad in China)’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0만 명 유치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유학 업무·서비스 구축, 우수 대학 및 학과군 설립 등 인재 유출에 대응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이다.
- 중국은 유학시범기지를 지정하고, 우수 어학 교육학과를 선발·지원하고, 유학생 유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 중국 유학생 정책의 문제

- 중국은 유학생에 대한 학사 관리가 잘 되고, 의학 전공자의 비율이 일본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성과를 갖고 있다. 다만 최근 유학생 증가율이 감소세에 있고, 유학생의 출신국과 전공계열의 쏠림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는 대부분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고, 전공 또한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제한된 영어 수업, 고용 시장의 불황, 졸업 이후의 현지 적응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미국

☐ 유학생을 위한 미국 대학의 재정 지원

- 미국의 경우,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정 및 지원 정책이 다르다. 주립(public)대학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반면에 사립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부모의 수입에 따라 부족한 금액의 학비에 대해 상당부분 지원하기도 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비부족분의 100%를 지원하는 미국대학은 하버드칼리지와 예일대학, MIT 등이 있고, 외국인 대학생에게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

학으로는 Deep Springs College, Olin College of Engineering 등이 있다.

□ 유학생을 위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업지원

- UC 데이비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ollege)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스템은 SISS(Service for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s)이다. 대학에서는 체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비자 및 이민 문제를 돕고 있는데, 특히 미국 비자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한다.
- 외국인 학생/학자를 위한 핸드북을 제공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 학업 지원의 경우, 대다수가 언어적인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니라 가난한 소수인종 이민자 그룹에서 온 학생들도 문법에 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Academic Assistance and Tutoring Centers'나 글쓰기센터(writing support center)에서, 유학생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학교에서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인 학생을 위한 ESL 수업이 있어, 영어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데, ESL 과정에서 미국 학부생 영어 "튜터"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 UC Davis의 경우, 한인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웹사이트⁴⁴⁾가 있다. 한인 유학생 및 그 가족의 친목 도모를 넘어, 한인 학생인권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한국문화전파, 학술과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유학 및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는 학업 후 미국 및 한국의 취업 마켓, 집구하기부터 아이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소통의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44) 웹사이트 : (<http://www.kgsaatucdavis.com>)

□ 사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 미국의 유학생들은 학교나 한인커뮤니티, 미국정부의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친구 및 가족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언어문제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언어과정과 지원센터가 있지만, 동료와 친구, 선배 등으로 이뤄진 개인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유학생들은 필요에 의해 지원기관을 스스로 찾지만, 학교기관이나 한인학생회 등을 찾아갈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학과 내 다른 학생들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인다.
-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은 비자 관련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유학 초기에, 집구하기나 학교생활 적응, 언어 능력 등은 친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프루프리딩, 글쓰기, 문장 봐주기 등은 주변 친구들의 도움에 받기 때문에 유학 생활의 초기 정착은 유능한 친구의 유무라고 볼 수 있다.

□ 취업준비 지원

- 능력주의 미국 사회에서 취업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커리어 리소스 센터가 학교마다 있다. 한국 대학에 있는 취업정보실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강의해주고, 코멘트 해주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학위과정에서 배운 것을 학교 밖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도 있다.

4)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외국인 학생 지원

- 코펜하겐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해 “출발 전-도착지원-정착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표 4-4] 코펜하겐 대학 유학생 지원

출발 전 지원	도착지원	정착지원
거주허가	급여, 세금과 연금	건강 및 의료서비스
주거	은행 및 보험	경력지원
자녀돌봄 및 학교	언어 및 문화	배우자 네트워크

인터뷰 결과

1.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2. 대전 유학생 관련자 의견

5장

5장 인터뷰 결과

1.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1) 조사개요

☐ 조사과정

- 유학생에 대한 조사는 유학생 지도교수와 유학생에 대한 인터뷰, 두 방향으로 진행했다. 우선 대전지역 교수 2명과 서울지역 교수 1명이 접촉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유학생의 학업 태도, 한국어 실력, 학업역량, 그리고 유학생의 고민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인터뷰 참여 유학생을 정하는 데 있어, 유학생의 특정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다. 인터뷰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별, 국적, 학과 등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들이 대전지역에 있는 모든 유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대전 3개 대학의 지인 교수에게 유학생 추천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2개 대학의 유학생을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락을 해 온 학생은 남성 1명, 여성 5명이었다. 추후에 여성 유학생이 여성 유학생 1명을 추천해 총 7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학생 당사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전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 동기
 - 유학준비 과정의 절차 및 어려움
 - 경제적 여건(등록금 및 생활비, 아르바이트)
 - 유학 생활 내 학교 적응 및 학업
 - 교수와의 관계, 한국인 및 출신국 친구 관계

-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적응
- 의식주 관련 소비생활
- 미래 기획(취업 및 정착지 결정)

○ 인터뷰는 9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2시간씩 2회 진행했고, 인터뷰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뷰 동의를 받았고,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했다.

□ 인터뷰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대전지역에서 공부하고 거주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다른 학업 구조,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 특히 대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학업에 관한 질문이 현재의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이들의 유학 동기와 과정, 졸업 후 미래기획에 대한 질문은 유학생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간적 관점과 다층적 관점으로 이해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 유학생의 현재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만을 파악하는 것은 ‘유학’을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유학이라는 개인의 선택이 유학생 개인과 유학생 가족, 나아가 출신국과 유학국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 1) 대전에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 2) 이들이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며
 - 3) 지역의 거주민으로서 존재하는 이들의 실제적 삶을 드러내어 정책 대상의 주체로 드러내,
 - 4) 실제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정책 간의 불일치를 찾아내어,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메우려는 것이다.

□ 인터뷰 참여

- 인터뷰는 총 7명에 대해서 두 번씩 진행했다. 여성2는 남편과 함께 중국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식당에 가서 인터뷰를 했고, 나머지 여성 5명과 남성 1명은 연구원에서 인터뷰를 했다.

[표 5-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번호	이름	나이	출신국	최초 입국시기	학력
1	여성 1	30	중국, 산둥	2013	박사과정
2	여성 2	29	중국, 산둥	2011.8.	박사과정
3	여성 3	32	중국, 길림	2014.3.	박사과정
4	여성 4	27	중국, 하남	2016.6.	학부
5	여성 5	25	중국, 길림	2014.9.	학부
6	여성 6	24	중국, 안휘	2016.2.	학부
7	남성 1	24	중국, 산둥	2016.8.	학부

2)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 사항

- 인터뷰참여자의 가족관계, 한국에서의 삶, 학교생활 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여성 1

여성 1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13년 대전의 P대학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2015년 석사를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 교수를 하다가 휴직계를 내고 2019년 9월, 다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P대학에 돌아왔다. 현재 P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조교를 하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드라마를 주로 시청하고, 주말에는 대전이나 서울에 가서 친한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낸다. 가족은 중국에 어머니가 있다. 한국어는 6급.

☐ 여성 2

여성 2는 2011년 교환학생으로 처음 P대학에 와서, 학부를 졸업한 후,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석사를 마친 후, 현재는 Q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 2017년 R대학에서 박사과정인 중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을 하면서 아는 중국인의 식당을 대신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 학교 수업 이외 대부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 보낸다. 가족은 모두 중국에 있고, 한국에는 남편과 둘이다. 한국어는 6급.

☐ 여성 3

여성 3은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2014년 한국에 와서 S대학에 편입, 대학교를 다시 졸업했다. T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마쳤고 논문을 작성중이다. 학교에서 조교 외에도 타 연구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도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저녁에는 피아노와 운동을 배우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한국어는 6급으로 매우 뛰어나고, 학점은 4.3점.

☐ 여성 4

여성 4는 2016년 한국에 와서 언어 연수를 마치고, 2018년 U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여성4는 중국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왔다. 여성 4는 저녁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쉬거나 공부를 한다. 한국어가 여전히 어렵고 수업도 따라가기 어렵다. 한국어는 3급이고, 학점은 2.5점.

☐ 여성 5

여성 5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왔다. 한국어 연수를 1년 반 정도 하고, 필요한 토픽급수를 취득한 후, U대학에 입학했다. 저

녁 시간은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한국어는 4급이고, 학점은 2.5점.

□ 여성 6

여성 6은 중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T대학에 편입했다. 저녁에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다. 한국어는 5급이고 학점은 2.4점.

□ 남성 1

남성 1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016년 한국에 왔다. 어학원에서 필요한 토픽 급수를 탄 후에, T대학에 입학했다. 저녁에는 게임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간다. 한국어는 5급이고, 학점은 2.4점.

3) 인터뷰 결과

(1) 유학의 동기와 경로

- 유학의 동기는 학부와 박사과정마다 약간 다르다. 학부과정 유학생은 중국에서의 대입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부모님이 한국유학을 결정한 경우가 다수다. 4명의 학부과정 가운데, 1명은 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명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다. 4명 모두 대학입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 유학을 결정한 경우다.
- 대전지역 대학에 입학한 인터뷰 참여자의 사례는 본국에서 대입실패에 대한 대안과 한국 문화 경험이라는 타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와 유사하다. 즉 물리적 거리, 한국 문화의 유행, 타 국가보다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낮은 입학 조건 등 개인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한국정책과 지역대학이 함께 만들어 낸 상황이 작용한 결과

인 셈이다(이민경, 2012).

- 박사과정의 경우,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동한다. 유학의 경로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대학으로 직접 입학하거나, 중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편입을 패턴이다. 박사과정에 있는 3명의 유학생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과정을 한국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경우다.
- 그러나 이민경이 지적하듯이, 아시아 유학생의 유학 경로는 “개인 간, 대학 간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들의 한국유학선택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이민경, 2012:197)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여성1과 2가 처음에 한국에 온 배경은, 재학 중인 중국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입학준비의 편리 및 정보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성 3은 아는 지인의 추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대입의 실패, 그리고 부모님의 요구

- 여성 5는 대입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후, 부모님이 한국유학을 결정했다. 여성 5는 한국어는 전혀 못 하는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다.

여성5) 때는 그냥 저는 중국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어로 수능시험 있었고요. 그때는 잘 못 해가지고. 그래서 유학하러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말 아예 못했었어요. 그때는 부모님 그냥 가라고 하고. 저는 그때는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수능시험 못 해서. 그냥 좋은 대학 못 가고요. 그래서 아는 이웃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 남성 1도 대입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갖은 후에 유학을 계획을 세웠다. 일단 중국 전문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유학을 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대학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 적은 없다. 남

성 1은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1년 동안 하면서 1급부터 시작해 현재는 5급까지 한국어 실력을 올렸다. 지리적 근접성도 있지만, 남성 1의 미래에 한국에서의 유학이 도움이 될 거라는 아버지의 판단에서 기획된 유학이다.

남성1) 사실, 아버지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 나라, 제 고향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려 가지고. 이렇게 두 나라 합작 관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나중에 한국말 알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전문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전공이 한국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맨날 땡땡이치면서. 저도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1급부터 6급까지 1년 동안 다녔거든요.

☐ 우연한 기회

- 여성 3이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한 배경은 매우 우연한 기회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는 한국인이 한국유학을 추천했다. 여성 3의 경우, 한국유학을 추천한 지인은 교회 관계자다. 여성 3이 주말 시간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3) 그때 일단 한국어 배우기도 했고. 그냥 뭘 좀 배우고 싶은데. 지인분이 한국 분이었어 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언어도 아니까 너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대전 선택

- 여성1의 유학 동기는 두 가지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로 취업을 해야하는지 막막했던 상황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한류에서 시작된 한국어에 대한 재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

경이 있다.

여성1) 원래는 대학교 다닐 때도 오고 싶었는데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석사를 드디어 왔어요. 처음에는 확실히 잘 모르고 그냥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또 어디서 취직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오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왔어요.

- 한국어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유학이 막상 두려웠을 거라는 여성1이 한국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한국음악 때문이다. 물론 여성1이 다니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점도 한국어를 빨리 배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 여성 1이 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여성1이 졸업한 중국 대학이 대전지역의 P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고, 유학 올 때 요구되던 한국어 성적이 3급이었기 때문이다.

여성1) (다른 학교)생각해봤는데 한국어 어려워서, 3급만 받아서 다른 학교는 갈수 없어요. 한국어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은 또 어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2) 학교생활

- 유학생의 학교생활은 수업이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어려워하지만,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학생마다, 한국 체류 기간에 따라,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다. 학부생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토로하는 반면에 논문을 써야 하는 박사과정의 유학생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

[표 5-2] 연구 참여자 유학 생활 정보

	여성1	여성2	여성3	여성4	여성5	여성6	남성1
학점	A+,B+	노코멘트	4.3	2.5	2.5	2.4	2.4
한국어	5급	6급	6급	3급	4급	5급	5급
교수와 관계	만족	만족	만족	보통	좋음	좋음	좋음
과 친구관 계	좋음	좋음	만족	친함	좋음	좋음	친함
학업	교수님 말 어려움	괜찮음	책 읽기 시간 결핍	수업 어려움	과제 어려움	교수님 말 빠름	교수님 말 어려움
장학금	등록금 50%	-	외국인, 연구,교 회장학 금	37만원	37만원	37만원	37만원
동아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민을 말할 한국인 친구	없음	없음	교회동 료	한명	없음	없음	없음

□ 한국어와 수업

-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여성1의 한국어 실력은 매우 뛰어나다. 토픽 5급인 여성 1의 말하기는 원어민에 가깝다. 다만 여성1은 앞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어 쓰기가 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다. 다행히 석사과정일 때,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전공공부를 열심히 해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위안을 삼고 있다.

여성1) 수업시간은 거의 다 중국인이예요. 석사할 때는 적어도 십 몇 명은 있었어요. 한명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어렵고 좀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그 강의를 다 예습하고 모르는 단어도 찾

아보고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대충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래도 전공 용어가 어려워서

- 여성 3은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여성3)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처음에는 바로 전공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용어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용어 같은 거 나오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습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읽기의 속도가 되게 느리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국어책이나 우리가 익숙해하는 책 보면은 한 시간에 몇 십 페이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일단 한 시간 동안 모르는 단어 찾으면서 하니까 한 시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못 읽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습을 하더라도 한 챕터 그냥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반 정도만 예습할 수 있는 정도?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 수업의 내용이 어려워 따라갈 수 없거나, 교수의 말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감을 잃게 된다. 따라서 교수가 질문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방법으로 곤란함을 회피하기도 한다. 한국어에 나름 자신이 있다는 남성 1은 교수의 질문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주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탄 방향을 바라보다) 하고 있어요. (자신 있을 때) 쳐다봐요. (대답은)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시간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여성 6은 자신이 없을 때마다 “고개를 숙여요, 자신이 없어서”요.

여성5)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저희 수업할 때 거의 조별로 토론하고. 교수님 물어보시는 거 대답하고요. 그래서 조별로 상의할 때 토론할 때 그때 좀 편했었어요. 교수님한테 말하면 좀 떨리고, 말도 못해 가지고 창피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 과제와 좋은 성적

- 학부과정인 여성 4, 5, 6과 남성 1은 전공 수업에서 해야 하는 과제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조별과제가 주를 이루는데, 보통 조별과제는 ‘자료수집 -> PPT 작성 --> 발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과 같은 조를 이룰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주로 자료 수집을 담당한다. 다만 조가 모두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들은 자료수집과 PPT 작성, 발표에 모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여성 4, 5, 6은 주로 자료 수집을 분담한다. 반면에 남성 1은 자료수집과 PPT 작성, 발표를 모두 해봤다.

여성4) 저희 숙제는 거의 조별 과제라서요.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는 항상 자료 수집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 (우리 조가)다 중국 유학생이라서 자료수집, PPT 작성, 발표 다 했어요.

여성5) 근데 저희들 역할... 항상. 아니 항상 말고. 대부분 자료 수집하고. 나중에 그 조별 팀 사람 정리하고 발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좀... PPT 작성은 해본 적 있어요.

- 특이한 점은, 외국인 유학생은 자료수집이 가장 어렵고, 발표가 제일 쉽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수집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료 수집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걱정이 많(여성 4)”기 때문이다. 여성 5와 여성 6은 “정리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발표는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니까”라며 한국어를 잘 못할 경우, 동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남성1) 저는 하던 대로 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던 대로 말해요. 막

내뱉어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 반면에 남성1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발표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남성1) 잘 나왔어요. C플러스. A대학교라서 성적이 잘 안 줘요. C 받아도 잘 하는 편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알 거 같아요. 시험 잘 못 쳐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는 게.

- 성적이 발표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은 성적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5는 “저는 A+ 뜬 적 있고. B도 있고. B+도 있고. 그냥 좀 달라요”라고 말했고, 여성 4는 “제가 B+, C, C+, D도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스스로가 한국인 학생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5)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네. 저희들 외국인이라서 못 하는 거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C 주셔도 아무 말 없어요.

- 한국어가 능통한 박사과정의 여성 3은 한국어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개개인의 역량 차이로 본다. 각 과마다 다르지만, 한국인 학생의 수준도 높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단지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배려하는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여성3)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 때문에 못 하니까. 그냥 유학하러 오면은, 당연히 언어적으로 혼자 해결해야지 유학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왜냐면 우리 과의 애들(한국인 학생)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유학생)는 열심히 했다고 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한국 학생들) 엄청, 답을 엄청 잘해 가지고 만 점보다 심지어 리포트 수준으로 답을 쓰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네. 사실은 어려워요. A까지 가는 게.

-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인 교수님에게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여성 4는 자신이 수업 중에 한국인 교수에게 질문을 했다가 미움을 받고 나쁜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성4) 제가 그 D 받은 과목 수업에서 OOO수업 교수님 수업 때 질문 했어요. 한국에 이런 -습니다, -요. 높임말, 반말도 있어. 중국은 달라. 중국에 높임말 없어. 제가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교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수업 시험 잘 준비했어요. 많이 했었어요.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D 받아서 놀랐어요.

-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에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도 많다. 여성 3의 경우, 좋은 성적을 위해 예습복습뿐만 아니라 리포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여성3) 저는 A+, A, 엄청 열심히 해야돼요. (필기시험은) 일단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해요. 포인트를 잘 잡으면 당연히 그 분량이 나와요. 그런데 모르면은, 포인트가 틀리 면은 점수 안 나오기 때문에.

- 여성 3처럼, 필기시험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포인트에 맞춰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시험문제를 잘 이해 못 하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 엉뚱한 이야기를 답안지에 작성하기도 한다. 여성 4처럼 “기억나는 것만 답안지”에 쓰거나, 여성 5처럼 “문제는 이해하는 만큼

한 네다섯 줄 쓰고, 나머지는 그냥 기억하는 ”것을 적는 식이다.

남성1) 저 안 써요. 안 쓸 수 있어요. (어떨 때는)막 써요. 아무렇게나. 반 정도?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교수님한테 말하고 싶은 말...문제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답안지 채워야 돼요.

□ 한국어로 대화하는 대상과 시간

- 한국에 오래 머물러도 한국인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처음 유학을 온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기 때문에 같은 국적의 유학생들과 더 자주 보게 된다.

여성1) 친구 관계는 사실은 저희는 한국 친구 사귀는 거 어려워요. 저희는 유학생 기숙사에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중국 사람끼리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한국인 만나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우리 수업은 거의 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수업시간 이외에 한국인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게임을 즐기는 남성 1은, 게임을 하는 동안에만 그런 긴 대화를 한국인과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화를 하다가 끊기는 순간! 그 어색한 순간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한국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남성1) 한 시간 이상?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 못 알아들으면 바로 끝이에요. 다 끝이에요. 잠깐 또 쉬고 게임에서. 두 시간 이상. 네 시간까지 해봤어요.

- 한국인과의 대화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르다. 여성 3은 한국인과 대화가 어렵지 않은 여성 3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인과의 다양한 대면관계를 갖고 있다. 주중에 피아노 레슨과 운동을 한국인 선생님에게 받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난다.

여성3) 저 피아노 배워요. 선생님 한국인이고요. (일주일에)한 번. 한 시간. 피아노 배우는 시간 빼고 따로 또 가끔 만나거든요. (찬송가) 그것도 있고 클래식 다 같이 다 배워요.

- 수업 시간 이외에, 게임 속에서, 피아노 수업을 통해서 한국인과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것 이외에,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이 대부분이다.

여성5) 저는 알바 할 때는 저는 포장하고 주문 받잖아요, 그때. 저는 손님이랑 통화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번호 같은 거 번지수 그것도 적어야 되니까. 네. 그런 대화 많이 했어요.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4는 담배 이름을 다 외웠다. 편의점의 손님이 담배를 찾는 분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4) 데리고 가서 찾아요. 담배 이름 다 외웠어요. 예를 들면 말보로. 더린 1mm (담배 이름 나열하는 중) 아이스 잭! 그거 되게 많이 나가요. 20대. 나이가 들으신 분은 거의 클라우드 그런 거. 한라산, 디스 플러스, 심플에이스도 많이 팔아요. 국산 담배 많이 피워요.

☐ 한국인 교수의 성희롱

-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유학생도 있다. 실제 여성 1은 처음에 교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소개해주신 교수님의 체면도 있고, 한국어를 잘 못 하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자신이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대해주던 교수는 6시에 퇴근하는 다른 조교들과 달리, 여성1에게 자신과 함께 퇴근 시간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여성1) 교수님이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옆에 방에 있는 조교님들 다 6시에 퇴근을 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저보고 내가 가는 시간에 가야돼. 저녁에도 같이 먹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갑자기 어떤 날 밥 먹다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얘기. 한국에서 어떤 나이 드신 교수님이랑 조교랑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 교수님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 하나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잘못하겠지 생각, 말씀 드리고 그냥 갑자기 표정이 굳어가지고 좀 이상하고.

- 소개를 해 준 교수님의 체면도 있고, 조교라는 자리도 잃고 싶지 않던 여성1은 가능하면 교수를 피하려 했지만, 교수의 요구가 업무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여성1) 또 어떤 날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파스 붙여달라고.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는 거예요. 밖에 사람 보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 아무래도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옆에 조교를 부르는 것 어떡냐고. 갑자기 나 남자로 보이냐고..

- 여성1은 이 일을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교수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나쁜 놈이니까 네가 조심해’라고만 충고를 해줬다. 유학생 담당관이나 학과에 상담을 요청했냐고 묻자 “처음에 말하기는 두려웠어요”라고 여성1은 대답했다. 대학교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학생이 교수와의 문제를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로를 알 수 없다.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했지만, 그 또한 어떻게 그 사안을 다뤄야 하는지 무지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에 있는 엄마에게 말할 수 없던 여성1은 한 학기 만에 조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문제를 덮었다.

(3) 아르바이트와 주거

□ 경제적인 이유와 한국어 공부

- 여성 3은 현재 박사과정이다. 석사를 한국에서 해서 한국어는 자신도 있다. 여성 3은 석사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한국어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능숙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조교도 하고, 이외 박사학위 논문 주제와 유사한 연구보조원도 하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보조원을 여성 3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석사 논문이 ‘이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석사 논문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간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 유수 아동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보조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어서, 여성 3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운 편이다.

여성3) 저는 석사(과정 때) 여러 가지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식당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 알바만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연구 조교? 연구 조교도 하고 교육 조교도 하고. 밖에서, 개발원에서 연구 지원? 연구 보조원 이런 알바 지금 하고 있어요. (석사논문이) 농촌에 있는 부모님들이 일단 경제생활 더 좋은 생활,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 이런 아이들이 유수아동.

- 이외에도 여성 3은 대학교에서 성적장학금을, 활동하는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한정되어 있다. 여성 4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수업이 끝난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시급은 6,500원이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지지만, 편의점 주인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한 달에 70만 원의 급여가 작지 않기 때문에, 여성 4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싶다.

여성4) 저는 편의점 알바 하고 있어요. 충대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일주일 다섯 번. 많이 안 주는데 6,500원. 안 줘요. 따져도 안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70만 원. 사장님이 별로예요. 사장님이 너무 치사하고 계속 CCTV 만 봐요 계속 보고 있어요.

- 여성 4는 편의점 사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가 일하는 내내 CCTV 를 그녀를 지켜보기 때문인데, 급여 외에도 여성 4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이유는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님 중에는 술에 취한 사람도 있고, 무례한 사람도 많다.

여성4) 일하면서 가끔 무례한 손님도 있어요. 예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와서. 저는 거의 그 손님이 7,820원 물건을 사서요. 만 원을 줬는데. 이쪽은 잔돈 없으시고. 그래서 2,000원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 백 원짜리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여기 책상 위에다가 놓고 그쪽은 돈을 꺼냈어요. 손님 막 화났어요. 왜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왜 책상 위에다가 놔요. 정말.

-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도 한다. 여성5는 대학에 편입하기 전, 어학원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아는 중국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물론 어학원에 다니는 동안은 아르바이트 비자가 없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구한 자리였다.

여성5) 저는 어학원 다닐 때는, 그때는 말을 못해 가지고 아는 이모 일하시는데 그때 한 1개월 정도 일하고. 그냥 말 못해서 제가, 아니 잘린 건 아니고. 제가 좀 쪽팔려서 창피해서 그만뒀어요. 그때는 중국집이었어요. 말 못해 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저 때문에 피해갈까봐

- 한국어 급수를 따고 대학에 편입한 이후, 여성 5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여성5) 또 짬뽕집 말고. 양꼬치 그런 중국집이었어요. 그때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일주일 다섯 번 나갔고요. 서빙도 하고 주방 보조도 했었어요. 그 때.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또 족발집도 일해본 적도 있고. 치킨집도 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 일하는 거 치킨집이었어요. 그때는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하고, 어학원 다녔을 때는 시급도 안 되고 한 5,500원 정도 받았었어요. 그때는. 족발집은 최저시급 받았고요. 치킨집에서는 한 9,200원 정도.

- 여성 6은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양고기 집에서 일하고 있다. 일주일에 4일, 하루에 저녁 시간 3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성격이 너무 불같아 일터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사장이 이유 없이 화를 낼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은 나름대로의 대처방식을 찾게 되는데, 여성 6은 사장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일터에서 불안을 줄이고 있다.

여성6) 저는 양고기집. 4일 정도. 손님이 별로 없어서 여섯 시부터 아홉 시 까지. 8,500원이에요. 사장님 중국 사람이예요. 조선족인데요. 손님이 오셨을 때도 화를 내요. 그러면 저는 무시해요. 사장님.

-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어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남성 1은 어렵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판단에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남성1) 저는 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만뒀어요. 원래는 알바는 목적이 언어 공부였는데 그냥 하다가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공부나 하라고. 돈 안 벌어도 된다고요.

- 이외에도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에는 중국 친구들 대신 한국화장품을 구매해서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여성1) 사실은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돈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부모님한테 돈 받고, 또 한국화장품을 사고 중국에서 파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또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 아르바이트 구하기

-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첫째는 아는 중국 사람을 통한 연결, 두 번째는 인터넷 어플, 세 번째는 학교 구인 구직광고 이용이다.

여성3) 저는 예전에 알바몬 쓴 적이 있고요. 학교에서 저 중국어 과외도 몇 번 했거든요. 학교에서 ○○○에 구인 구직에서 광고를 그냥 올려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럴 때도 있고. 연구 관련된 거는 조교님이 소개해주기도 했고. 또 연구원에서 박사님들도 연락을 해주고

여성4) 저는 알바는 저기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있는 방, 그룹 채팅에서 어떤 사람 광고 낸 거 보고 거기서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보통 그렇게 찾아요.

□ 주거 및 식생활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초기에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1인 가구 자취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다. 여성 2는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2017년 결혼하면서 남편과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여성1은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다.

여성1)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그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한 학기 동안은 기숙사비를 냈는데 나중에 관리 교사로 그냥 다른 기숙사 있는데 그 기숙사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숙사에 있는 유학생 관리를 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래서 관리 교사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 여성 3은 기숙사에 살고 있다. 학부생 4명은 모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여성 3은 기숙사 내에 있는 시설에 만족해서 석사와 박사과정 내내 기숙사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3) 저는 기숙사요. 편하고, 저렴하고, 경치도 좋고, 헬스장도 있고. 가스비, 전기 비용 그거 따로 내거든요. 한 달에 16만 원. 쓰는 만큼 내는 거라서, 만약에 16만 원 못 쓰면 다시 환불 해줘요. (관리비) 58만 원 따로 내고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그 비용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보통 16만 원 다 못 쓰고 항상 3만 원, 4만 원 돌려받아요.

-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두 명이 한방을 써야 하는 점, 간단한 조리도 할 수 없는 점은 불편하다.

여성3) (한 방에) 두 명이요. 학기마다 다르고. 한국 친구도 있고, 중국 친구도 있어요. (밥은) 신청하면 되는데, 저는 아침, 저녁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어요. 점심은 식당에서 먹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아침에도 간단하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 학부생들은 주로 자취를 한다. 여성 5도 처음에 기숙사에 살다가 원룸으로 집을 옮겼다.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하던 것이 불편했던 여성 5는 친구의 소개로 방을 얻었다. 처음에 23만 원 하던 월세는 지금을 올라 30만 원이고, 관리비는 매달 10만 원이다. 여성 5는 외식이 지겨울 경우 가끔 요리도 한다. 한 달 식비는 약 40~50만 원이다.

여성5) 집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기숙사에서 살아 봤거든요. 그 좀 불편하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따로 나와서. 그때는 친구 소개해 줬었어요. 저는 해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시켜 먹을 때도 있어요. 대충 한 40~50만 원? 인 것 같아요.

- 여성 5의 월세와 관리비가 다른 인터뷰 참여자에 비해 비싼 이유를 물었다. 그녀의 원룸은 “좀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새 빌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여성 4는 같은 빌라에 사는 중국인 친구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소개받았다. 관리비 포함 매달 25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여성 4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 않고 주로 사서 먹는다. 한 달 식비는 약 25만 원가량이 든다.
- 여성 6도 기숙사에 있다가 도저히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어 원룸을 얻어 나왔다. 한방에 4명이 사용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 층에 하나씩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은 더 불편했다.

여성6) 저는 작년에 기숙사에 살았어요. 여기는 중국인들 거의 많아서. 외국인 기숙사에서요. 한 방에 네 명 있어요. 공공화장실이랑 샤워실 한 층에 하나 있어요. 한 학기에 42만 5천 원.

- 현재 여성 6은 같은 과 중국인 친구랑 함께 방을 얻어 살고 있다. 학교에서 먼 곳에 집을 얻어서 매달 20만 원과 관리비 3만 원 가량을 내고 있다. 둘이 살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며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

여성6) 저희 방세 좀 싸요. 20만 원. 한 달에. 전기비, 가스비 따로 내요. 에어컨 자주 틀면 한 전기비 3만 원 정도 나와요. 에어컨 안 틀 때는 한 5천 원~8천 원 정도 써요. 식사는 거의 집에서 해서 먹어요. 한 5만 원 정도.

- 남성 1도 자취를 하고 있다. 요리를 하면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주로 외식을 하고 있다. 한 달 식비는 35만 원가량 든다.

남성1) 저도 두 달 기숙사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서, 월세 한 달 22만 원, 전기세 따로 내요. 다 포함해서 25만 원 나오는 거 같아요. 친구 소개로 얻었어요. (부동산)한번 가봤는데, 그 수수료가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 주로 혼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요리를 해먹기보다는 학교식당과 거주지 근처의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한국 음식였다. 여성 3은 “저는 한식을 엄청 좋아하고요. 기름 많은 음식 안 좋아하고 담백한 음식 좋아해요.”, 여성 4는 해장국을, 여성 5는 떡볶이를, 여성 6은 “저는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중국 음식 먹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주로 혼자 식사를 하는 남성 1은 한솔도시락을 자주 이용한다. “값도 싸고 맛있더라고요. 꾸물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가게 두 개 있어서”

(4) 학비와 소비생활

- 학부생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비는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생활비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남성 1은 매달 70만 원가량을 받아 생활한다. 여성들은 생활비의 일부, 방세 정도를 부모에게 지원받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보태고 있다.
- 박사과정 중인 여성 1은 식사 때에는 부모님에게 유학과 관련한 모든 돈을 지원받았다. 매달 80만 원씩 받아 생활을 했었는데, 현재 박사과정은 지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 약 180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하고 있다. 여성 1의 생활비는 보통

쇼핑에 많이 들어간다. 지난달에 여성 1이 옷과 신발, 화장품에 들인 돈은 백만 원가량이다.

여성1) 저는 일단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옷도 많이 사고 화장품도 많이 사고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옷은 정확하게는 계산해 본 적 없어요. 9월 달에 바지는 3개, 신발 2개 다른 거는 안 샀어요. 화장품도 여기 오랜만에 왔잖아요. 쉼도우를 하나 사고 립스틱 3개 사고 쉼딩도 하나 사고 다른 거는 없어요.

○ 외국인 유학생의 쇼핑방법은 인터넷쇼핑과 쇼핑몰 방문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둔산동과 은행동에서 주로 쇼핑을 한다. 남성 1의 경우, 둔산동과 중앙로를 많이 찾지만, 인터넷쇼핑도 자주 이용한다. 박사과정인 여성 3은 쇼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 년에 두 번 정도 몰아서 쇼핑을 한다. 가장 최근에 40만 원가량 옷을 구매했다. 여성 5는 얼마 전에 50~60만 원가량 옷 구매를 했고, 여성 6은 2018년에 80만 원가량, 올해 들어서는 20만 원가량 옷 사는데 지출했다.

여성6) 저도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한 80만 원 정도 샀어요. 올해는 별로 안 샀어요. 올해는 한 20만 원 정도

여성5) 그냥 안 나가고 싶을 때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냥 패딩 같은 거 그때는 뭐 가을 와서 할인 있잖아요. 그거 저는 패딩 인터넷으로 시켰었어요. 한국 돈으로 바꾸려면 50~60만 원

○ 여성 5는 화장품매장을 운영하는 이모가 있다.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동생이다. 이분으로부터 화장품을 대량구매 한다. 물론 엄마 화장품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준다.

여성5) 7월달은... 저는 이모 화장품 팔거든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받으려면 한 30%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친한 이모 아니고 우리 엄마 친구 동생이구요. 그냥 좀 멀긴 한데... 둔산동 말고 만년동이요. 로션 그런 거 샀고요. 그리고 엄마 쓰는 것까지 다 사요. 80~90만 원 정도 써요. 비싼 것만 샀어요. 설화수.

(5) 다양한 사회적 관계

-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는 다양하다. 교수, 한국인과 친구들 등 대학교에서 맺어지는 관계 외에 주거지와 아르바이트 장소, 교회, 게임 속, 식당 등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다.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주일에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물었다. 당연히 수업시간에 만나는 같은 과 동료들을 자주 만나고 있었다.
- 학교 친구 외에 자주 만나는 사람을 물었을 때, 남성 1은 “별거 없어요. 그냥 혼자” 다니고, 따라서 식사도 주로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같은 과에 다니는 중국 남자 한 명”과 같이 다니고 있었다.
- 여성 6는 “룸메이트랑, 학교의 (중국인)친구, 같이 수업하는 (한국인) 친구” 외에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 여성 5는 “중국에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 한 명”을 자주 만나고 이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 여성4도 마찬가지였다. 학부과정 유학생의 경우, 학교 친구, 특히 같은 국적과 고향 친구를 제외하고는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여성 3은 학교 외에 교회와 취미로 배우는 피아노 선생님, 운동 선생님 등과 규칙적인 만남을 하고 있었다.

여성3)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무조건 만나고. 또 교회에 전도사님, 간사님, 목사님 만나는 시간도 되게 많아요. 피아노 선생님도 만나고

□ 외국인에 대한 차별

- 여성 1이 경험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사소하지만, 일상적이다. 길을 잘 몰라서 택시를 타거나,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한국어를 잘 이해 못 한다면 짜증을 내는 한국인이 불편하다. 여성 5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외국인이라 차별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여성5) 저는 요즘에 알바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 번 전화가 왔는데 그 앞에 대화 잘 했는데, 마지막에 혹시 외국 사람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대답했는데, 그래서 외국사람 안 받는다고.

- 남성 1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알바천국 어플을 이용한 적이 있다.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남자는 안 받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남성 1은 본인이 남성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남성1) 알바천국 사용해봤어요. 알바천국 어플 사용해보았는데, 서빙 구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남자 안 받아요. 술집 같은 거였는데, (저를 안 받은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 특정 국가에 대한 무시

- 여성 1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은 ‘너희 나라에 이런 거 없지?’ 혹은 ‘이런 게 있어?’라는 식의 말투다.

(6) 의료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생에게 적용 혹은 지원되는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1년 반 유예되면서,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3) 그거는 사실은 그거 한국에서 작년에 국민건강보험 적자 나와 가지고. 외국인들은 다 무조건 건강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그런 거 나왔거든요. 7월 16일부터 무조건 가입하라고. 그런 정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50% 할인을 받지만 그래도 한 달에 5만 5천 원이에요. 그 정도 하면은 학생, 많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72만 원 정도. 아마 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큰 부담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청원한 결과는 기간을 미뤘어요. 2021년 3월, 2월까지. 1년 반. 18개월. 유예를 하는데. 근데 이거 뭐냐면 원래는 자원적으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안 돼요. 되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저 가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거 건강보험. 근데 제가 그 전에 편지 같은 거 안 받아 가지고 몰랐어요. 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거. 7월 19일에 갔는데 지금은 가입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데 가입을 못 한다고. 너무 극단적이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가입도 못 한다고.

- 물론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별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자체가 안된다. 1년에 14만 원으로 저렴하지만, 저렴한 만큼 커버되는 분야가 적다.

여성3) 학교에서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이 1년 한 십 몇 만 원이에요. 저렴해요. 학교 말고 그냥 단체 보험. 외국인 단체 보험. 1년 십 몇 만 원. 연령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거는 안 되는 분야도 많고. 그냥 그대로 (돈)내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냥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 대학교에서 외국인 단체 보험 가입을 의무로 했는데,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 진료를 받고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없다.

여성3) 안 가입하면 우리 수업이 신청이 안 돼요. 수강신청이 안 돼요. 가

입 안 하면 수강신청 안 돼요.

- 여성 5는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 병원 진료비 10만 원에 약값으로 2,3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서류를 내는 것이 복잡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여성5)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감기 걸려서.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복잡해서, 귀찮아서 안 냈어요. 그 뭐지,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 작년 10월 달에 (진료비가)한 10만 원 정도, (약값이) 2-3만 원.

- 여성 4는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갔다. 친절환 의사가 1만원을 깎아줬지만, 2번의 진료를 받고 낸 비용은 총 25만원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의무보험이 있지만, 정보의 부족 혹은 절차의 복잡함으로 여성 4는 보험사용을 포기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비용 절감이 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대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4) 제가 눈... 안과 가는데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 받을 수 없어요. 단체 보험 가입했죠. 그 의사는 깎아줬어요. 만 원 정도 깎아줬어요. 봉명동에 있는 거요. 총 20만 원이었어요. 두 번 갔어요. 25만 원요.

-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이 너무 좁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이 알고 있는 보험의 커버 영역은 감기나 복통과 같은 내과에 한정되어 있고, 치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유용한 분야의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7) 미래기획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대답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와 ‘한국 체류’, ‘망설임’ 세 가지로 나뉘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취업이었고, 한국 체류는 대학원 진학 및 취업으로 나뉘었다.

- 그러나 최근 유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한 단일한 범주, 유학생보다는 학생이자 노동자이며, 여행자라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이해하는 시각이 퍼지고 있다(김도혜, 2019)⁴⁵⁾.
- 따라서 대전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몇 년 동안 대전에서 머물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부모의 자원이 충분해서 부유한 국가로 이주한 유학생은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을 획득할 수 있거나(Ong, 1999), 공부를 하며 노동을 하기도 하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변칙적인 이동성(mutant mobilities)을 갖기도 한다(Allon, Anderson, Bushell, 2008)

□ 본국으로 돌아가기

- 여성1은 한국에서 석사를 한 뒤, 중국 대학에 취업을 해서 돌아갔다. 대학교에서 4년간 강사로 있다가, 정규직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해 다시 한국에 왔다. 여성1은 박사를 취득하면 다시 중국에 돌아가 복직을 할 예정이다.

여성1) 제가 딱 졸업할 때는 ○○대학교에 국제교류원 원장님이 오셨어요. 중국 학교 무용학과 애들을 데리고 와서 ○○대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저를 보고 ‘너 진짜 한국어를 잘 한다’ 그래서 (중국대)학교에 올 생각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엄마한테 여쭙보고 엄마는 당연히 좋지 그래서 다시 (중국대)학교 가서 취직했어요. 제가 정직원인 아니잖아요.

45) 김도혜(2019), “교육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해외 유학생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 연구, 제31집, 39-68.

근데 학교에서 정직원 되려면 박사가 필수죠. 그래서 왔어요.

- 여성4는 졸업을 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부모님도 그녀가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여성4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우선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다.

여성4) 그냥 바로 중국 가요. 부모님 희망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창업을 하라고, 지금은 잘 몰라요. 부모님이 저에게 투자를 한 대요. 그런데 저는 생각 없어요. (결혼 생각) 있어요. 졸업 후 2년 후에 결혼하고 싶어요. 제 나이가 28살이에요, 한국 나이. 중국에는 좀(늦은 거라)

- 여성 6도 졸업을 하면 중국에 돌아가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이다. 여성3은 박사 논문을 쓰고 나면, 우선 중국에서 일을 찾아 볼 생각이다.

여성3) 졸업하고는 일단 기회를 볼 거예요. 중국에서 아무튼 교수 되고 싶은데, 중국에서 만약에 자리가 내가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바로 갈 수도 있고. 당분간 없으면 한국에서 또 한 번 찾고 그럴 수 있어요.

☐ 한국에서 취업하기

- 박사과정에 있는 여성 2는 논문을 쓴 뒤 우선은 한국에서 일을 찾아볼 생각이다. 논문을 쓰고 있는 여성2는 박사과정인 남편이 논문을 쓸 때까지는 한국에 머무를 생각이다. 남편보다 박사과정을 먼저 끝낼 여성 2는 우선은 한국에서 일을 찾아볼 생각이다.
- 여성 5는 최종 결정을 못 했지만,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 구체적인 결정은 못 했지만, 대학원에 갈 마음도 있다. “좀 한국에 있다가 대학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냥 한국에 있고 싶어요”. 남성1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다. 본인보다는 아

버지의 바람이다.

남성1) 저는 대학원 가려고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버지 강요. 여기 있으라고. 박사 못 할 거 같아요.

2. 대학 유학생 관련자 의견

1) 조사개요

☐ 조사과정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자는 총 네 분야, 다층적으로 만나봤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대전지역 교수 2명(ㄹ대학 1명, ㄷ대학 1명),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자 5명(ㄱ대학 1명, ㄴ대학 2명, ㄷ대학 2명),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동료로 만나고 있는 대학생 2명과 멘토 경험자 2명, 총 9명을 만났다.
- 교수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유학생 업무 담당자 5명은 전화인터뷰, 한국인 대학생 4명은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2)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의견

☐ A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 A대학교의 경우, 유학생을 받아들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유학생의 초기 정착과 관련한 문제는 안정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학생이 입국 및 입학과정에서 비자 문제나 지역에 와서 숙소 구하기 등에 대해서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A대학교는 한국인 학생인 멘토와 외국인 유학생 멘티를 매칭하여, 유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 설계

를 위한 교수 및 교직원과의 상담을 진행한다.

- 현재 A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민은 한국어 문제와 학과 적응 문제와 이로 파생된 전공 수업 따라가기, 수업 내 팀워크 프로젝트 참여의 어려움, 한국인 학생과의 친구 맺기 등과 같은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다.
- 학부생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유학생, 특히 학사경고를 받은 학부생과 이외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 A대학교의 유학생은 증가세에 있지만, 주류였던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다.
- 유학생 가운데 공부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물며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은 없는 상태로, 출산한 이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B 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담당자

- 베트남 유학생의 주요한 상담 내용은 한국어 능력 및 실력에 대한 고민이 많다. 어학연수로 한국어 점수를 받아야 학부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와 읽기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은 후에, 한국어를 실습할, 한국어를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점도 고민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인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 한국어를 실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 아르바이트 문제를 상담하는 학생도 있는데, 한국어 자격 2급을 받지 못하면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한국어 급수를 딸 것을 조언해주는 선에서 상담이 그치고 있다.

☐ B 대학교 중국 유학생 담당자

- 중국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상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처음에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은 한국어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다.
-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 실력이 느다고 격려를 해주는 선에서 조언이 그치고 있다.
- 학부생들의 경우 전공 수업에서 한국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상담이 많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한국인 학생에 밀려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한 염려도 있다.
- 교수들 가운데 수업시간에,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중국인 학생을 차별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상담도 적지 않다.

☐ C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 C대학교의 유학생은 어학연수생은 없고 교환학생과 대학교 및 대학원생이 주를 이룬다.
-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어 수준이나 능력에 대한 유학생의 고충은 없다. 한국어 급수는 입학허가의 기본이지만, 한국어를 학교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 C대학교의 유학생 지원은 기숙사 제공과 장학금 지급 등이 있으며 타 대학과 유사하다.
- C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의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다.

☐ C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담당자

- C대학교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유학생과 유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입생 유학생과 기존 유학생을 매칭 해주어 한국에 온

초기 유학생의 어려움을 돕고 있는데, 같은 국적의 학생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C대학교의 버디프로그램은 한국인 재학생 1명과 교환학생 3명을 연결하여, 한 학기동안 여행과 영화보기 등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2019년 버디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인 학생은 77명이고 교환학생은 그 세배다. 한국인 학생의 지원이 많은 이유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수료증을 제공하며 이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 유학생 관련 교수 및 한국인 대학생 의견

☐ 한국어

- 대학교수들인 파악하는 유학생의 첫 번째 어려움은 언어, 한국어 수준에 대한 것이다. 성공적인 유학 생활의 바탕이 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 따라가기, 교수와의 관계,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 학교 밖 생활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 1) 제 수업에 한정해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학년에 따라서 달라요. 고학년일수록 한국어도 잘하고, 수업 이해도도 높죠. 과제의 질도 당연히 고학년 유학생이 저학년 유학생보다 높지요.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인 학생 A) 저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을 만나봤어요. 중국 유학생의 경우 정말 열심히 하고 한국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적응을 못하고, 한국 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봤어요.

□ 수업 진행

- 한편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의 어려움도 크다. 유학생 유치에 신경을 쓰는 만큼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수2) 유학생 가운데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수업에 소극적인 면도 있고, 특히 조 활동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 교수 1은 루마니아 학생을 전공 수업에서 만난 적이 있다. 수업에 대한 태도 외에 유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함께 경제적인 배경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교수1) 그녀는 1, 2학년 때에는 의욕도 높고 적응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좋았어요. 이후 가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쳐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한국말을 잘했지만, 학문적 용어나 어려운 어휘는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어 수업 자체를 어려워했어요. 한국어 시험이 불가능해서 영어로 문제를 내고 영어로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배려도 했어요. 하지만 답안지에는 수업내용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어요.

- 자비 유학이 많은 대전의 경우, 유학생 가운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비 유학이 대부분이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필요해 보인다.

한국학생 A) 베트남 친구들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학비가 비싼 편이라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학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이런 생활이 힘들어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학생 사례도 봤어요.

한국학생 B) ○○는 항상 열심히 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하지만 중국에 비해 한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고 물가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에 알바를 다닌다고 합니다.

□ 학교와 교수의 문제

-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 입학으로 분류된다. 학교 수입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유학생을 대학교에서는 유치하려는 입장이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유학생만을 뽑으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
- 유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수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 특히 입학과정에서 한국어 등급의 문제를 제기한다. 높은 한국어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유학생의 실제 한국어 능력이 수업을 진행할 만큼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인 학생의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단과의 경우, 한국인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유학생들 때문에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이다. 특히 조별과제가 많은 학과의 경우,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조를 이루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그러나 가까이서 외국인 유학생을 경험한 한국인 학생의 경험은 다양하다. 중국인 유학생 멘토를 한 ‘한국 학생 B’는 중국인 유학생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학생 B) (지난 학기 멘토멘티를 한 중국친구) ○○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별과제를 항상 꼼꼼히 하고, (다른 친구에게) 피해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고, 한 달 전부터 피피

티와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과 끈기가 있어요.

- 한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권 유학생과 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권 유학생이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와 아시아권 국가의 유학생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와 한국인 학생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 학사관리의 문제

- 성적과 관련해 한국인 학생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에 불만이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성적에 관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선호한다. 외국인 유학생 많은 학과의 경우, 유학생이 대부분이 낮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은 어느 정도만 하면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한국학생 D) 제가 유학생이랑 조별과제 한 거는 ○○○말고는 없었지만, 같이 잘했어요. 그냥 한국어도 좀 하고 이야기하는 데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 경우는, 조별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자료는 잘 찾아줬어요.

- 그러나 한국 학생들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자나 도와줘야 하는 동료가 아니라, 함께 돕고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학생 A) 유학생들에게 낯선 문화에 적응을 돕고,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현지인 친구를 만날 기회를, 한국 학생은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 유학생 간, 혹은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 외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교류 문제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은 한국인 학생 나름대로, 외국인 유학생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 상호교류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교수 2) 10년 전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했지요. 유학생이 지금보다 적을 때는 한국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자국 유학생끼리의 교류는 많지만, 다른 국가 유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적어진 거 같아요.

- 각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수료증이나 이외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이 참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학생 A) 유학생들에 외로움과 언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도 ○○○처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및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유학생을 돕고자 하지만, 실제로 유학생들에게 ‘친구’로 다가가는 봉사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학생 C) 저도 멘토멘티를 참여했는데 멘티 친구 만나보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유학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한국인)학생들은 유학생을 바라볼 때는 접점이 없으니 그냥 그렇다 혹은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6장 결론

1. 요약

1) 통계상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

☐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

- 2018년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6,87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로, 서울의 외국인 유학생은 61,163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고, 경기도, 부산, 경북, 충남, 대전 순이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추세

- 2003년 이래로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증가세에 있다.
2003년 314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6,877명으로 늘어, 약 21.9배 증가했다.

☐ 자치구별 외국인 유학생

-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 2,922명으로 제일 많고, 동구 2,442명, 서구 914명, 대덕구 577명, 중구 22명 순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2017년 외국인 유학생은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 2,611명, 동구에 2,226명, 서구 810명, 대덕구 299명, 중구 57명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외국인 유학생 연령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연령은 20대가 78.5%인 4,713명, 10대가 13.8%인 831명, 30대가 7.1%인 427명, 40대가 0.5%인 28명이다.

- 연령별 성별 비율을 보면, 10대와 20대에서 여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고, 30대와 40대에는 남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 외국인 유학생 성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이 3,532명으로 남성 3,345명보다 더 많다.
-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은 2003년 초기에는 남성이 많다가 2009년 이후로는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38.6%로 제일 많고, 다음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23.9%이다.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체류자의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4년 이상 5년 미만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수보다 적다.
- 체류 기간을 성별로 보면, 3년 미만 체류에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남성보다 많고, 4년 이상에서는 남성 외국인 유학생이 여성보다 많다.

□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52.3%는 중국 출신이다.
- 다음으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순으로 나타난다.
- 국적과 성별로 외국인 유학생을 보면,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 러시아, 중남미 출신에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외국인 유학생은 남성이 많다.

☐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2005년 이래로,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박사 전 학위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 학위별로는 학부과정이 가장 많고, 석사, 박사 순이다.
- 어학연수생도 2005년 102명에서 2018년 1,02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 **대전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충남대학교에 1,458명, 우송대학교에 2,06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충남대학교에는 어학연수 유학생이 약 30%를 차지하고, 우송대학교에는 학부생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 카이스트 외국인 유학생의 50% 이상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393명 전원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 **대전지역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 학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67% 이상이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이고, 공학 계열이 16%이다.
- 석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57%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이고, 31% 이상이 공학 계열에 재학 중이다.
-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47.6%가 공학 계열이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23%대로 유사하다.

☐ **대전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 특이성**

- 대전지역에 있는 대부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되어 있다.
-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는 의학 계열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 한밭대학교와 우송대학교에는 공학 계열에 적지 않은 비율로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 우송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의 학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고, 목원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에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게 있다.
- 카이스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80%가량이 공학 계열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있고, 석사과정에 인문사회계열을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다

☐ 대전지역 유학형태

- 대전지역 대학교의 유학형태는 카이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비 유학이다.
- 우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거의 100%가 자비 유학이고, 충남대학교는 95.5%, 한남대학교가 91.3%, 목원대학교가 88.4% 등으로 확인된다. 자비 유학비율이 제일 낮은 대학은 대전대학교로 74.5%이다.
- 카이스트는 오직 10.5%만이 자비 유학이고, 대학초청 유학생이 53.4%, 정부 초청이 14.1% 등이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 여부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38.3%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 2018년 대전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능력충족 학생 비율은 37.51% 을 보인다.
- 2018년 대전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능력충족 학생 비율은 23.69%이다.

2) 인터뷰에서 나타난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

-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혹은 경험한 어려움은 학교 안과 학교 밖, 혹은 현재와 미래, 공간과 시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 학업과 일상생활, 그리고 현재 학업과 미래기획에 대한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7명이기 때문에,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교수 및 한국인 학생, 그리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어 능력

- 대전지역 대학교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충족한 학생비율은 37.51%, 대학원에 등록한 한국어 능력 충족 학생비율은 23.69%다.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득한 한국어 급수는 6급 2명, 5급 3명, 4급 1명, 3급 1명이다. 대학 및 대학원 입학에 맞는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은 갖췄지만, 박사과정을 제외한 학부과정 대부분 유학생은 전공 수업 및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 학교수업

-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 중 전공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있는 대학원 학생의 경우, 책을 읽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 학부생의 경우, 전공 용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조별과제를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참여와 필기시험의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다.

- 즉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을 결정하는 학교 수업은 한국어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인과의 대면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시간 이외에 한국인을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 온 이래로 한 시간 이상 한국인과 이야기를 한 경험을 물었을 때,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은 남성 1이 유일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과 1시간 이상의 대화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 실력에 대한 스스로의 두려움이 컸다. 남성1의 한국인과 장시간 대화 경험도 직접 대면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나눈 대화였다.

☐ 아시아 유학생에 대한 차별

-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다양하다. 수업시간에 교수들의 언어, 같은 과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배제, 그리고 일상생활 속 한국인의 무시 등이다.
-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은, 대학교 차원에서의 인식교육과 시민 대상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사회적 관계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는 좁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는 출신국 학생 및 같은 과 동료로 한정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 사회적 관계 확장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은 교회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의 노력으로는 사회적 관계 확장은 한정적이다.

☐ 의료지원

-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7명 모두 대학교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 이런 이유는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의료서비스와 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유학생 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컸다.

☐ 미래기획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자비유학생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및 지역대학의 노력으로 대전지역에 외국인 유학생은 존재한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는 글로벌시대에 도시 경쟁력 및 지역대학 국제화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인구 특히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정부 차원에서 대전에 머물거나 일하고 싶은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 지역 대학의 경우,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정부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도전적 지역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지역 대학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대학업무에 지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런 차원에서 지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각 대학 총장이 함께 모여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우선되어야 지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다.

1) 대전시의 정책적 접근

□ 조례 제정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대전광역시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현재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은 894명으로 대전시 6,887명의 약 8분의 1수준이다. 세종시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 지원을 통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하고 그들의 지역 생활활동 참여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이다.
- 이 조례를 통해 세종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이들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의지를 내보였다. 조례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국내에서 첫 번째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6년부터 세종시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시청 및 공공기관에서 번역, 해외정책자료 수집, 외국인 대상 민원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세종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2018년 11월 1일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수가 적고, 인구 대비 비율이 낮은 도시’이다. 반면에 지역별 국내 거주 외국인 대비 유형별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7.9%인데, 대전은 29.2%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 대전지역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범주를 보면,
 - 외국인 근로자 13.8%, 결혼이민자 16.3%, 유학생 29.2%, 외국국적동포 8.8%, 기타외국인 31.9%임을 감안하면, 단일 범주로 외국인 유학생은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 국제교류센터의 역할 : 기능 확대 vs 선택과 집중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목적을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 및 민간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정하고 있다.
- 현재 국제교류센터는 센터장 1명과 4명의 직원으로 이뤄져 있다. 소규모 조직으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모든 업무!
 -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편의시설 운영
 - 외국인 취업상담
 -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 및 편의 제공
 -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과 시민에 대한 국제화 지원
 - 시와 자매·우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민간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8개 사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다.
- 또한 현재 국제교류센터는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지역 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
- 조직을 확대하여 현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국제교류센터가 집중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
 - 국제교류센터 조직 확대 VS 집중 분야 선택 전문성 강화
 - 유학생 집중 조직으로 변화할 경우,
 - 주택 임대 계약 및 아르바이트 활동 시 국내법에 대한 조언 및 지원시스템
 - 졸업 후 취업 및 국내 체류 관련 정보제공

- 대전시, 대학교, 유학생 3자의 정례 만남을 통한 현안 공유 및 공동 대안 마련 장 마련
-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외국인 주민’ 관련 전문가 자문은 고려되어야 한다.

□ 청년정책과 유학생의 연계

- 대전시가 주요하게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빠져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는 정책의 다양성, 도시의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전청년 청춘광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대학생 대상 사업은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학자금대출신용회복지원, 희망장학금, 대전형코업청년누리더양성사업, 대전일자리카페운영,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운영지원, 청년진로콘서트 등이 있다. 이런 사업에 대전지역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취·창업 준비 및 취·창업자 지원 정책 대상에 유학생 포함 고려
 - 대전형 코업청년 누리더양성사업과 같은 청년 인턴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포함
 - 청년 대상 공간지원사업이나 주거 방안, 대청넷, 해외교류사업, 예술사업 등에 외국인 유학생 참여
-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시행규칙] 제4조 3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 인구정책과 유학생의 연계

- 지역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내재화한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서 포섭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정부는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등은 우수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인 친화병원 지정

- 대전지역 유학생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병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통역 등 서비스를 개선이 시급하다.
 - 유학생 병원 지정, 통역서비스 지원
 - 건강 및 보험 관련 세부 정보 다국어 지원 매뉴얼 및 리플릿 제공
 - 감염병 등 유입 및 전파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유학생 대상 정보 제공

2) 교육기관의 정책적 접근

☐ 맞춤형 한국어 지원

- 2018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총 6,877명(여성 3,532명, 남성 3,345명)이다. 이들 유학생은 유성구에 42.5%, 동구에 35.5%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유학생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몽골,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다.
 -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수업
 - 대학별, 수준별 외국어 수업 강좌개설 혹은 대전지역 대학 연합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 개설
 -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작성 수업에 대한 강좌 및 커리큘럼 개발
 - 대학원 유학생 대상 논문 맞춤법 및 문법 교정을 제공하는 한국어 클리닉(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 수업만족도 제고

- 전공 수업에 필요한 발표문 작성법, 발표, 보고서 작성법, 파워포인트 작성법 교육(건국대학교)
- 기초한국어 교양과목 개설 및 한국 문화 및 시사 관련 중·고급 과목 개설(계명대학교)

○ 입학 전 한국어 준비

- 경성대학교와 단국대학교는 입학이 확정되면, 자국에서 한국어 및 전공 관련 교육 제공(교육부, 2018)

□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 유학생 전용 교과목 개설

-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전용 교과목 개설(단국대)
- 유학생만 입학 가능한 국제자유전공학부 신설(단국대)
- 외국인 교원으로 구성된 국제학부 별도 운영, 졸업 후 한국 및 국제영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마련(영남대학교)
- 외국인 학부 유학생 대상 이중 언어과정 운영 및 외국인 대학원생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영어 논문 작성법 특강(한국해양대학교)

○ 유학생 학업 지원

- 전공 분야 전문용어 이해도 향상을 위한 단과대 협력 전공기초과목에 대한 단어집(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부산대학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및 한국어 특강 및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분야 기초학습역량 지원프로그램 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
- 유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학과별 최소 1명 이상의 외국인 교육 지원(계명대학교)

- 비영어권 출신 국가 유학생을 위한 논문, 리포트, 발표, 이력서 영어문서 첨삭 지원(서울대학교)

□ 학교, 의료 및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 대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건진료소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송대학교 2,066명, 충남대학교 1,458명, 카이스트 844명, 한남대학교 576명, 배재대학교 548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93명, 이외 목원대학교, 한밭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도 각각 2백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국어 설명서
 - 대학별 유학생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인근 병원과 연계
- 학사 일정 및 규정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 휴학 및 복학, 졸업 요건 등 학사 규정에 대한 설명회 및 4개 국어 유인물(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제공(건국대학교)
- 생활서비스 지원
 -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 매칭, 1학기 15시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공항 픽업부터 한국 생활에 도움을 준 한국인 학생에게 봉사시간 및 장학금 제공(홍익대학교)
 - 유학생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수강신청, 기숙사 및 도서관이용, 보험, 학교 프로그램, 은행 및 보건소 이용 정보제공(전북대학교)
 - 유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신적 불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제공(경희대학교)
 - 위기상담(자살방지, 예방 교육, 자기조절, 캠퍼스 안전망) 및 인권교육(서울대학교)
 - 유학생 학업 및 상담 제공(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 대전국제교류센터와의 정책 및 사업 연계

□ **한국인과의 대면 및 사회적 관계망 확장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한국인과의 대면, 사회적 관계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각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사업에 대한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 대학별 멘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위한 전담 조교 배치
 - 학과 및 학교별 일정 비율 이상의 유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을 지원할 전담 교수 및 조교 배치
 - 학교생활 적응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인 학생과 일대일 멘토 연결 활성화, 멘토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외국인 유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 지원
 - 유학생-내국인 학생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1, 2학년 학부생과 한국인 학생과 1:1 매칭을 통한 기초전공과목 학습 도우미 시스템 운영(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 한국인 멘토가 외국인 유학생의 논문 및 각종 보고서 지원(전북대학교)

□ **교직원 및 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 교직원, 교수, 내국인 학생 및 유학생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을 의무화한다.
 - 총학생회 혹은 학과 학생회에 유학생을 대표할 유학생을 일정 수 할당제로 선출
 - 축제 기간에 ‘유학생의 날’ 혹은 ‘문화교류의 날’ 등을 통해 교류의 장 확대
 - 대학 내 ‘글로벌 라운지’ 설치, 유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자국어

가르칠 기회부여, 한국 학생은 외국어 수업을 제공받고 유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방식

□ **취업 및 체류 지원방안 개발**

- 졸업 후,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이나 체류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대학이 졸업 후,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 대학의 비개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최저임금, 임금체불, 차별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노동법 및 노동권에 대한 기본교육 제공
- 취업절차, 취업통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참고문헌

□ 단행본

- 강동관, 설동훈, 임경택(2012).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 IOM이민정책연구원.
- 김도혜(2019), 교육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다문화콘텐츠 연구, 제31집, 39-68.
- 김상욱·윤지원(2017),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지수의 지역별 비교 -서울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4), 157-184.
- 김철희외(200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연구
- 김한나 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Vol.17, No.4, 311-337
- 김혜진(2008), 지역 내 중국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 교육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 이민정책연구원(2018), 외국인 전문 인력 입국 및 체류실태; 리서치에 이플러스(2017), 외국인 전문 인력, 유학생 정책 개선 방안
-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권 2호, 177-201.
- 문부과학성. 2010. "유학생 30만인 계획의 진척상황"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 www.jasso.jp.or
- 문부성(2008).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 연구. 김우중. 2011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10. No.17에서 재인용.
- 법무부(2019),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 충청지방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충청지역 외국인통계
- http://www.kostat.go.kr/office/ccro/rocc_nw/2/6/index.board?bmode=read&aSeq=372141, 2019년 1월 29일 검색

행정안전부(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Choudaha, R. (2017). Three wave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1999~2000). Studies in Higher Education.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75079.2017.1293872>

King, R., Findlay, A. & Ahrens, J.,(2010),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literature reivew. Report to HEFC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Global Education Digest (2006)

□ 사이트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ag-2018-en.pdf?expires=1542619321&id=id&accname=guest&checksum=2104A17E6556C6587C88CDB1B1F611E6>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http://www.kgsaatucdavis.com>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student

□ 정기간행물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http://www.cnedu.pt/content/noticias/internacional/Education_at_a_glance_2018.pdf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37376068.pdf>

□ 논문

곽용(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환경 지각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논문

리통(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손교교(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이혜성(2012), 중국유학생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내 축제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및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 신문기사

김지현,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 모집도 난항, 금강일보, 2019.01.10.,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209>

윤희섭, 등록금 인상 가로막힌 지역대학...“유학생이 돌파구”, 충청투데이, 2018.12.24.,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651>

이삭,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살지유, 경향신문, 2019.0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72106005&code=620111